朝鮮日報

購讀料 一個月八十錢 一個月先金郵稅並 … 一個年先金 …
廣告料 五號活字十五字詰一行金一圓廿錢 特別活字 … 特別告額 …
編輯兼發行人 金容熙 印刷人 金邦柱
發行所 京城府水標町四三番地 朝鮮日報社 長電話本局二二五六番 振替口座京城四〇九九番

青年聯合會에서 自由縱覽室을 設置

一步를 更進하야 努力하기를 望함

朝鮮青年聯合會에서는 各社會의 智識的要求가 殷切함을 斟酌하고 더욱이 無產青年의 境遇를 同情하야 그네들의 見聞을 多少라도 推廣할 目的으로 新聞雜誌等을 多數히 購置하야 自由縱覽室을 設置하고 一般에게 縱覽을 許諾한다는데 女學生들의 參考가 될 만한 雜誌도 多數하다 하니 우리는 此를 盛擧이며 美擧이라고 信하는 同時에 그 事業을 微細한 事이라고 等閑히 認치 말고 一步를 更進하야 努力을 加하야 成效를 大收하도록 勉勵함을 希望함으로 務義의 蕪言을 한 번 聯合會諸賢에게 贈與코저 하노라

如今時代에 在하야 智識的 慾望을 充足하라면 新聞이나 雜誌의 短篇的 論評과 報道를 採拾함으로써 到底히 完수타 하지 못할 것은 重複한 言辭를 費할 必要도 無한 바이며 小하여도 全體稱과 實質에 相當한 우는 事業을 아직 朝鮮의 青年을 聯合한 機關으로 그 名縱紀하지 못하고 一個縱覽室을 設備한다 함이 넘우나 茫若하고 넘우나 機憫하야 人으로 하여금 氣가 塞하고 心이 灰함을 禁키 難한 바이나 每事를 이와 갓치 實地를 務하야 進々不已할 진된 또한 그 前途에 限量하지 못할 進步가 有할지니 우리의 現程度를 露骨的으로 直說할진된 新聞雜誌를 閱讀할 만한 智識이 有한 者도 全種族의 幾少部分임을 不知할 바이며 閱讀할 만한 智識이 有한 者이라도 金錢을 耗費치 아 購讀코 覺悟를 抱한 者가 幾萬個人이나 될도 不知할 바이며 또는 그 智識과 그 覺悟가 有한 者이라도 그 金錢이 拔月支給할 實力이 有한 者가 幾個人이 될을 不知할 바이니 이러한 情形을 모다 加減하고 乘除하야 推測할진된 新聞雜誌의 紹介되는 智識이라도 能히 收拾할 方便이 有한 者가 大槪少數임은 無疑한 바이며 聯合會의 自體事業으로 論할지라도 當局한 諸彦이 敎育, 產業, 思想等 各方面에 對하야 그의 實力이 豐饒하면 胸中에 徘徊하는 腹案을 모다 實施하야 此도 經綸하고 彼도 鋪置하야 公益을 圖할 터이나 孔方氏가 便宜를 假借하지 안이함에 야 奈何오 以上所言이 모다 筆者의 臆測說이지만은 아마 確實한 事實일지라 그럼으로 於是乎 僅々히 縱覽室이 設立되얏고 設立되얏스나 各坊曲通衢大道에 多數로 設立되지 못하고 艱辛히 一個所가 設立되얏스니 우리가 그 苦衷을 思及할진된 汎然히 諒解할 수 만 有할 뿐이 아니라 到底히 贊意를 不表하며서는 非人情이라 할지로다

新聞을 縱覽하게 함이 비록 高尚한 敎育方法이라 言치는 못할 바이나 國民의 思想을 啓發하고 風氣를 鼓吹하야 普通의 識見을 增益하는 터에는 또한 多大한 效力이 有함으로 中國의 北京天津等地에서 旣行한 例를 見하면 人衆이 群集하는 街路沿邊에 地點을 擇하야 閱報館(卽縱覽室)을 設立하고 報紙를 備置한 外에 擔任한 演士가 有하야 每日幾時式 講演을 行하면 何時에든지 何人이라도 新聞을 見하고 講說을 聽할 수 有함으로 自然히 街頭에서 勞働生活을 하는 者이라도 現代에 對한 理解力이 增進하게 될지라 그 政府의 政治上 大方針이 善良치 못함으로 그러한 微細한 事가 能히 偉效를 收치 못함은 事實이나 그 方法인즉 甚히 良好한 方法이니 智識이 幼稚한 時期에 在하야는 가장 必要하다 할지라 우리도 그와 갓흔 主義로 縱覽室의 數爻를 增加하고 規模를 擴張하야 新聞雜誌를 購覽할 金錢이 無하고 智識이 無한 者에게 世界現勢의 大槪와 當今에 應用하는 科學의 一班이라도 知得하야 人이 智識이 有한 後에라야 生存競爭에 可히써 角逐할 資格이 有함을 覺悟하게 할 진된 그 全體社會에 影響을 與함이 엇더하리요 前日에도 言한 바어니와 現今 各社會에서 多行하는 講演會의 實況으로 論할지라도 비록 聽講者의 滿場喝采를 博得하기도 하고 人의 心理를 鼓하야 時代에 對한 思潮를 引導하는 效驗이 多大함은 誰라도 共認할 바이나 此가 智識階級에 屬한 人士나 學習時代에 在한 學生만을 檣進함이 아니라 未來에 抱負한 智識도 無하고 現今에 準備하는 方便도 無한 者 곳 言한진된 無產者、勞働者들 셔지라도 다 갓치 見聞하고 覺醒할이 가장 緊要한 目的이라 할 터이어늘 그럿치 못하고 尋常한 講演이라도 그를 聽하는 者를 見하면 誰를 禁하고 誰를 許함은 아니나 自然히 普通的이 되지 못하고 局限的이 되야 그 講演을 開하여서 必要한 者보다 그 講演을 開안이도 關係가 無할 人이 多하니 그러한 缺點을 補救코저 할진된 自由縱覽室의 設備가 가장 必要하다 할지라 그러나 現今의 設備로만은 效力을 完全히 期必하지 못할 바인즉 百難을 突破하고 一步를 更進하야 幾個人의 俱樂部와 同一한 結局이 無케 하라 如此히 言함이 비록 無責任한 者의 實地를 量度하지 못하는 言論과 如하나 此치 熱誠만 有하면 可成치 못할 事가 無하나니 聯合會諸賢의 熱誠을 確信함으로 敢히 數々함이로라

中華直隸系의 解剖 (三)

今日에 曹錕吳佩孚의 關係는 全然히 同等의 資格으로 同等의 地位에 立하야 吳는 曹에게 掣肘와 壓迫을 加코져 함은 또한 過去를 回想하야 養虎遺患의 感이 업지 못할 것이라 그와 갓치 現在直隸系內部를 解剖할진된 左와 如하니

甲、曹錕派 國務總理張紹曾 內務總長高凌蔚 財政總長劉恩源 江蘇督軍齊燮元 陸軍檢閱使馮玉祥 直隸省長王承斌 山東省長熊炳琦 前直隸省長曹銳 直隸省議會長邊守靖 前熱河督辦王統芝 前內務總長張志潭 前財政總長潘復 前國務總理顏惠慶 前司法總長王正廷 前外交總長施肇基 交通總長吳毓麟

乙、吳佩孚派 湖北督軍蕭耀南 福建督理孫傳芳 河南督理張福來 江西督理蔡成勳 安徽督理馬聯甲 前交通總長高恩洪 前內務總長孫丹林

右는 單히 曹吳兩派의 主要人物을 擧한 것으로 直隸派內에는 截然히 兩派로 分함을 判視할지니 曹吳兩雄이 直隸系內로부터 그와 갓치 對立함에 至한 主要原因은 吳佩孚가 頭를 擡하고 忽起한 것인데 此에 詳言할진된 安直戰爭以後로 曹吳兩雄의 時局에 對한 態度와 將來에 向한 抱負와 野心이 着々히 相異한 結果이다 奉直戰前에 奉直의 關係가 非常히 險惡化함을 當하야 曹錕은 將來를 憂慮하는 바에 奉天系와 戰爭을 開함을 極力으로 反對함을 不拘하고 吳佩孚는 强硬한 主戰說을 固執하야 終局에 曹氏가 屈從케 함은 曹吳의 時局에 對한 意見이 如何히 相違됨을 表示한 好實例이라 그러나 斯와 如히 曹錕吳佩孚의 兩氏가 意見을 異히하야 黨中黨을 樹立하얏스나 그의 分裂이 다만 直隸系內部에 對立에 止한 뿐이오 表面의 分裂을 또 實現치 못하엿나니 그 理由는

一、曹吳兩氏의 立場의 相違됨은 只今것 大體上 意見相違에 止할 뿐이오 利害의 正面衝突은 아즉도 一無한 것이며

二、正面에 敵對되는 奉天系를 控制하는 今日에 直隸系의 分裂을 招함은 曹錕氏나 吳佩孚氏나 共히 不得策되는 危險한 것으로 確信하야 曹吳兩氏가 共히 勉勵하고 互讓的 態度를 取하는 所以이며

三、曹錕氏에 對하야 從來恩義上 主從의 關係를 履하야 如히 棄하야 絲緣할 와 如함은 吳佩孚氏의 行치 못할 事情이 되는 所以이라

朝鮮古今人物 (四〇)

沈義謙

沈義謙의 字는 方叔이오 號는 巽菴이니 青松人이라 進士文科로 官이 大司憲에 至하다 爲人이 容貌가 魁偉하며 氣岸이 豁達하고 孝友恭儉이 天性에 出하나 이러므로 비록 戚畹에 居하야스나 當時의 士類가 推重히 지안이하는 者가 無하더라 舍人이 되얏슬 셔에 事가 有하야 領相尹元衡에게 稟할 셔 맛참 金孝元의 寢具가 元衡甥姪의 室에 在한 것을 見하고 心中에 大疑하얏더니 밋 孝元이 登科한 後에 銓名이 日로 盛하니 義謙이 여러 번 그의 淸選을 遏한되 孝元이 또 當時의 名士輩로 더부러 서로 衝突하야 顯著히 分黨의 漸이 有하거날 栗谷李珥가 憂慮하야 上에게 알리여 兩人을 모다 外方으로 出하야 鎭定의 計策을 作하게 하니 於是에 義謙을 出하야 開城留守를 삼앗더니 鄭仁弘이 가장 嫉妬하야 掌令이 되얏슬 셔에 義謙을 劾하고 자하거날 時에 栗谷이 都憲이 되야 固止하되 不聽하더라 李珥가 成渾으로더부러 議論하야 曰 我가 時輩를 從하지 안이하면 반다시 此로써 我를 攻할지로다 하고 啓草를 略具하야 義謙이 身이 戚里에 居하야 士心을 積失하얏다는 것으로 能히 기를 請하얏더니 仁弘이 士類를 援附하얏다는 語句를 添附하니 上이 見하시고 士類를 問하신되 仁弘이 鄭松江澈等을 歷擧하야 對하니 栗谷이 大驚하야 仁弘을 招하야 責하더 後에 完伯으로 派遞하야 坡山村舍로 歸하얏다가 庚辰에 復出하야 北伯이 되고 壬午에 全州府尹을 拜하다 退溪李滉이 嘗히 書로써 國事를 勸勉하야 曰戚里에 有賢함은 國家에 福이라 하고 또 栗谷李珥가 嘗히 上에게 白하야 曰沈義謙은 外戚中의 佳者라고 하더라 靑陽君을 封하다

兪絳

兪絳의 字는 絳之니 杞溪人이라 辛卯에 進士文科로 翰苑에 薦入하고 官이 兵曹判書에 至하다 嘗히 人다려 일러 曰 吾가 다른 長技는 無하나 朝廷에 立한지 三十年에 嘗히 權威家門庭을 踐하지 안이하얏노라 하더라 陳復昌이 用事에 絳이 自己에게 附하지 안이함을 嫉하야 嘗히 傾陷하고 자하거날 絳이 조금도 動心하지 안이하고 詩를 作하야 剌하다 再次憲府의 長이 되얏더니 맛참 林百齡 誹謗의 事가 有하야 一時의 淸流로 館職에 居한 者는 모다 將次罪를 得할서 元衡이 또 絳을 乙巳의 黨人이라 하야 竝罪하기를 請하니 明宗이 그의 心을 洞燭하야 幸히 免함을 得하얏스나 元衡의 怒가 오히려 不解하니 上이 絳을 爲하야 嶺北을 出按히게 하다 卒하니 諡曰肅敏이라 하얏더라

楊士彦

楊士彦의 字는 應聘이오 號는 蓬萊니 淸州人이라 文章에 能하고 또 善書하니 世人이 仙風道骨이라고 稱하더라 庚子에 生員文科로 官이 府使에 至하다 嘗히 詩를 作하야 曰『美人如玉隔三山、十載江湖鬢雪斑、願奇裵佰明月夜、和風吹入玉欄干』이라 하니 大槪士彦이 上顔을 一次瞻謁하고 자하나 不得하얏더니 幸陵에 日에 衆人의 中에 셔기여 袞冕을 仰覩하고 此詩를 作하얏더라 一代의 奇士로써 落拓不遇하다가 卒하니 世人이 모다 惜히 더라

露國의 研究 (十一)

黃痴生 譯

『코뮤ㄴ』은 또 隣接農民間에 敎育的 事業을 行하고 農村의 利潤取得者에 對하야 小農을 保護하며 援助할 義務가 잇고 經營上 便宜한 境遇에는 二個以上의 隣接『코므유ㄴ』은 一團體로 合同하며 또 散在한『코뮤ㄴ』間에는『코미운』同盟을 組織하얏다

農業『코미운』은 任意自由의 土地共產團體인 故로『코미운』員의 多數決議로 何時이라도 解散할 수가 잇스며 또『코미운』의 經營이 不生產的 境遇에는 人民委員은 此에 解散을 命할 수가 잇다

此等의『코미운』은 最初에 農業『코미운』局의 管轄에 屬하얏스나 一九一八年十二月의 大會結社 서로히 農業人民委員下에 集合的農業局이 設立되얏고 集合的 農業局이 組織的의 事務를 開始한 것은 一九一九年五月以後이라 一八一八年七月初에는 農業人民委員의『코미운』局에 登錄된 農業『코미운』은 三百四十二로 九千九百八十五人의『코미운』員이 잇슴에 不過하다 그러나 同年八月末에는 五百二十三 十月十五日에는 七百 十一月一日에는 九百十二 合計人員三萬二千百九十九人이오 其土地는 七萬三千八百九『데사진』으로 其中四萬三千八百九『데사진』은 耕作되얏스며 一九一八年十二月前記布告의 結果『코미운』은 一層進步되야 同年十一月一日에는 千九百二十一의『코미운』이 登錄되고『코미운』의 人口는 十萬三千三十七人에 達하며『마구렌ㅣ』『農業人民委員』세레사』開會見記에 依하면 一九二〇年後半에는『코미운』의 數가 三千이 達하얏다

朝鮮物產奬勵를 代辯하라는 羅公民君에게 告함 (五)

朴衡秉(寄)

獨逸에『갈!・카우스키』를 變節漢이라고 하지만은 이런『갈!・카우스키』라도 有產無產의 合致를 論한 적은 한 時도 업다 君이여! 우리가 歷史를 全혀 不認하면 모르거니와 歷史를 多少라도 是認하면 有產無產의 合致的 傾向을 取하든 佛蘭西大革命과 露西亞의 第一革命(三月革命)이 如何히 우리 無產階級革命運動者에게 敎訓을 주잇는지 알 것이다 佛蘭西大革命과 露西亞의 第一革命이 成功된 後에『힙처다보던 리울 처다보더시』有產階級에게 모든 政權을 奪取되지 아니하엿던가?

그러하니 君과 갓흔 公民的 道德을 가진 賢人君子가 아모리 發主를 義를 絕叫한들 根本的 殘忍無道한 有產階級이 엇지 눈이나 깜작어리리요?

君의『偶然이 相呼相應한 結果 朝鮮全體가 擾動되는 것이만의가?』이라 한 말을 보건된 自解將假的 心理가 分明하나 君은 생또아的 中毒이 全世界와 全人類를 支配하는 現代의 輿論 眞正의 한 輿論을 모르는 것이 아니면 僞大下에서는 모든 것이 모다 假善과 虛僞뿐이엇던 엇지 이 輿論에 眞正한 輿論이 엇을 수 잇슬가? 階級的 自覺이 업는 나衆은 생또아의 僞善的 宣傳을 眞正하게 밋고 運動하는 것이 許多한 것은 조곰이라도 社會運動에 對하여 理解를 가젓다 하는 君으로서 東西相應한다고 自誇的 盲辭를 느리고니 넘우나 民衆의 所謂輿論을 沒理解치 아니하는가? 興論! 輿論이라고 참! 말하고 보니 鷲미 跋할 바이 아닌가! 君이여! 昨年秋에 飛行家 安昌男君을 前後에 업는 歡迎을 함과 日露戰爭當時에 日本의 主戰論이 沸騰함과 또 年前 大戰當時에 各國의 主戰論의 沸騰이 果然眞正한 意味에 輿論이엇슬가? 君이여! 正當하고 公平하게 判斷하기를 願한다 君은 그런 不合理由的 輿論이 모다 民衆의 自發的 熱情에서 터나 온 줄 밋는가? 眞理가 아닌을 眞理로 알고 動搖하며 眞理를 眞理인 줄 모루고 動搖치 아니하는 바는 알지 못하는가?

君의 所謂近代的 民族主義는 合理的 階級爭鬪를 否認하고 不合理的 民族的 爭鬪를 鼓吹함인가? 이러한 君의 所謂近代的 民族主義者는『社會主義와 何等抵觸이 업다』하지만은 階級爭鬪로 全社會運動의 根本을 삼는 革命的 社會運動者와는 君과 갓흔 如似非似主義者와는 天地의 差異가 잇고 不可合할 抵觸이 잇는 줄 確信한다 그럼으로 君은 有產無產의 合致를 無產階級解放의 一階段이라고 妄信하지만은 나는 天地가 뒤집어져서 革命的 社會運動이 全혀 覆滅한다 할지라도 이 두 階級의 一致協力은 不可할 줄을 斷言한다

其二『國家라는 것은 階級爭鬪의 軋轢으로 出來한 產物인 서라에 그 政權의 行使는 每樣被壓迫階級에 不利하고 資產階級의 利益을 保障함이 그 存在의 意義가 되는 것이라 그러나 一國家가 他國家를 征服하엿슬 때에 그 關係를 持續하는 동안에는 一種變態의 主隸關係가 生하는 것을 우리가 實例에 依하야 確證을 擧할 수 잇다 無產者인 東拓移民의 생또아氣分을 消輝함과 朝鮮有產者의 企業이 것々치 失敗에 陷하야 餘地가 업시 되는 것을 무엇으로 說明하랴?』

君의 이 말에도 相當한 理由가 잇는 줄을 한다 그러나 君의 論法을 보면 階級爭鬪와 有產階級의 搾取行爲가 一國에 限하여 實行되는 줄을 알고 國境을 超越한 國際的 階級爭鬪와 國際的 搾取를 알지 못한 듯하니 이것은 가장의 誤解이다 勿論日本資本主義勢力이 朝鮮內地로 侵入하면 朝鮮資本家의 勢力이 漸次衰敗하여 질 것이다 그러면 資本家의 道德이 自國內 小資本家의 勢力을 壓制치 아니하고 殖民地 資本家의 勢力만 壓倒할 만치 人道的이요 또 所謂愛國的임은 아니다 그럼으로 大資本家의 利潤搾取上 野心은 國內 又는 國外를 勿論하고 小資本家의 勢力을 壓抑하려고 萬般手段을 使用할 것이다 어느 點으로 보아서 階級爭鬪가 國際的이 안인가 또 資本家의 搾取的 行爲가 國際的이 아니라 할 수 있슬가? 만일 階級爭鬪와 資本家의 搾取的 行爲가 國際的이 아니라 하면 맑쓰가 共產黨宣言 最後에『萬國의 勞働者들아! 團結할자!』라고 한 말이 無意味하지 아니할가?

『카이데루』外 妾의 告白 (五五)

閔 □齋 譯

妾도『퇴』孃의 可憐한 情勢를 인마음 惻隱하게 넉이여 어느날은『퇴』孃을 對하야

『아우리 생각하여도 나의 마음으로는 이러서지는지 同情하는 마음이 업지 안이하나 지使에서 나의 말을 잘 드를는지 알 수 잇슴 수 즉 貴孃이『석터』에게 直接으로 談判을 하는 것이 조흘 줄 압니다』라고 말한 즉『퇴』孃은

『에 그 千萬意外의 말슴이지 當初에 그것은 되지 안을 일이올시다 그 兩班의 일을 내가 當身에 말슴엿줄는 것은 저 兩班은 조치 안게 넉이실러이지만은 別로 다른 方法이 업습니다 그려……』

그것은 무슨 理由이냐고 妾의 質問에 對하야 孃은 이것은 밤서도록 잠 한 잠 못자고 窮理한 것이 잇스니 그 窮理하야 약이을 徐々히 내여 노흐며

『그 사람과 내가 서루 戀慕하는 한 마음은 오늘날 셔지도 조금도 變하지 안엇슴이다 또한 彼此에 希望은 遂하지 못하엿다 할지라도 어느날 셔느서에 相思하는 懷抱는 난이지 안고 繼續되엿슴이다 나도『석터』를 思慕한 지가 발셔 十餘年이나 되엿습니다 보서요 當身의 緊히 請할 당습은 나의 事情을 一分이라도 同情하여 주시서든 野遊遠足會를 發起하시고『석터』와 그 友人 두어 사람과 王子와 百日咳에 걸닌 兒童 一二名을 招待하게 되면 두도 지이 計策을 아지 못하고 忽然히 籍絡中에 싸지게 하겟습니다……』

『퇴』孃은 이와 갓치 말한 後에 遠足에 適當한 名勝地를 選定하엿다 그것은 風景이 絕佳한 瀑布잇는 곳이다 우리들은 馬車數三臺를 빌려 가지고 藥車賃金은 各自가 負擔하기로 하엿스니 食費々지 合算하드릭도 決斷코 費用이 過多하지는 안어하다

그런데 遠足地로 選定된 瀑布잇는 데々지 가서 妾는『석터』와『퇴』孃 두 사람을 거기다 가두고 妾은 혼자 이리져리 散步하는 體하다가 슬그먼이 몸을 씨처라날 作定이다.

『퇴』孃々다시 妾에게

『그런데 萬若 그럿케만 되거든 當身은 三十分쯤만 그 자리를 셔나주시면 나에게는 그런 幸福이 다시 어디 잇슴니다』

懇懃히 付託하는 그 얼골에는 무엇이다고 말할 수 업는 喜色이 나타난다

郭氏典理公校尉公上將軍公三派合修大同譜 遠近僉宗從速修單 趂期來參 俾無漏一之憾 伏望
校正期限 癸亥八月二十日
京城府仁寺洞百十一番地
玄風郭氏大同譜所 告白

開闢 六月號 附 慶北道號
□半島의 宗敎及道德의 解剖 … 李敦化
□思想轉換◇在來宗敎의 運命 … 林□柱
□嗚呼金雄親權의 亂動 … 痛 生
□中國에 在한 日本의 利權 … 在 東 谷
□亞와 東亞의 今後大勢 … 李
□在布哇六千同胞의 實況 … 在米生
□波蘭、和蘭、白耳義遊記 … 朴勝喆
文藝
돌아간 異端者(小說) … 吳英輝
무은 手記에서(斷想) … 金惟邦
多淚多恨의 慶北民謠 … 車相瓚
□一府廿二郡一島의 辰韓故國
□依然不振하는 本道의 敎育
□民怨이 漲天한 義城郡廳
□우리가 본 慶北의 各郡
□二百年前에 歸化한 大和魂
定價並送料五十二錢 (必要한 金)
發行所 京城慶雲洞八八 振替京城八一〇六番 開闢社

부인(婦人) 一週年紀念號
녀자이닌 사람에게 ……… 小兒
女權運動者에게 問함 ……… 父 春
女學校를 나온 諸妹에게 ……… 品 月
結婚에서 離婚々지 ……… 一 葉
첫살・살이・를 써 나면서 ……… 幽 谷
創作
봄바람(小說) … 卵 鳥
寢床에서(隨感) 梁在惠
莫愁湖의 달(詩) 柳友竹
今日男女의 求하는 異性 ……… 四ㄱ八ㄱ
現下의 日本婦女界 ……… 朴思稷
五月端午와 漢城 ……… 海 松
漢陽城을 一周하고서 ……… 春 坡
男女學生間의 戀愛問題 ……… 一記者
다ㅣ 表出치 안켓슴니다、全文 二十四頭一百八頁이워다 홀몸한 增大號인 同時에 革新號입니다、定價는 如例卅錢

夏季大割引
敬啓者 本商店에 開業以來로 諸位의 愛護하사는 厚誼를 報答키 爲하야 營業을 一層擴張하는 同時에 選手職工을 雇聘하야 精密製造하야 特別廉價로 販賣하오니 僉位는 一次試用하신 後 陸續注文하심을 務望홈
깃도短靴茶色黑色 自十二圓五十錢 至十三圓
깃도編上靴茶色黑色 自十四圓五十錢 至十五圓五十錢
西洋編詩黑色茶色短靴 自十一圓五十錢 至十二圓五十錢
黑編詩編上靴茶色黑色 自十三圓五十錢 至十四圓五十錢
黑編詩便上靴 自十一圓 至十二圓
黑編詩短靴 自九圓 至十圓
運動靴 自十圓 至十一圓
但他店에서 販賣하는 定價表와 比較하야 보시면 本店에 信用을 알 깃삼
醴泉邑本町 新興洋靴店 主 黃秉模

不可輕視할 吾人類社會의 重大問題는 梅毒과 淋疾

吾人肉眼으로 보이지 아니함의 一口로 梅毒이니 淋病이니 하나 黴菌殘酷한 毒菌이 吾人肉體의 侵入하야 可惜히 半生을 悲哀苦痛中에서 送하는 者實로 多數할 뿐 不啻라 和樂한 家庭에 神聖한 倫紀를 紊亂케 하며 慈子를 喪하고 子孫後裔々지 此惡毒한 菌의 累를 遺傳하는 者이니 實로 梅毒과 淋疾은 一家를 滅亡하고 一國을 災亂케 하는 故로 亡國病이라 稱하여도 過度한 惡言이 아닐지로다 故로 歐米文明諸國에서는 此를 撲滅할서 巨財를 不惜하고 多大한 犧牲을 拂하는 現狀이니 此는 正히 人道上 人類의 當然한 事爲라 於是乎아 本院은 此의 憾한 바 有하야 淺學菲才에 不肖함을 不顧하고 奮然히 起하야 梅毒과 淋疾로 因하야 苦痛中에 陷한 可憐한 同胞를 救濟하는 同時에 永久히 此害毒을 撲滅하기 爲하야 努力코저 하오니 本院의 趣旨가 實로 此에 存한 터이라 大方諸位는 本院에 微意를 諒하시와 指導와 贊助를 賜하시기를 伏望하나이다

□歐米諸國에서는 此毒菌撲滅코저

花柳病科專門學者諸氏는 多大한 努力과 心血을 傾注하야 晝夜研究에 專心하든 結果 비로소 梅毒病原菌『스페로헤테 파리다』이라 稱하는 病菌을 發見하고 또 淋疾의 病原菌『고노콕겐』이라 雙球菌을 發見以來 多數한 專門學者가 相踵輩出하게 되엇스니 獨逸人『엑리히博士』와 프랑스라우大學『엑나이쓰루博士』와『되고라이르博士』米國의『森村博士』日本에 … 氏等은 現時代表的 專門研究家라 然하야 現今以上諸氏의 發見創造한 新藥은 實로 理想的 完全한 奏效를 得함에 至하야 頑惡하고 難治에 梅毒과 淋疾도 全히 治키 容易하게 되엇스니 此는 實로 文明의 所賜라 謂할지라 然이나 現下朝鮮의 狀態를 見할진 아직도 梅毒을 唐瘡이니 走馬淋이니 하며 또 淋疾은 治淋이니 沙淋이니 酒淋이니 色淋이니 하야 其治療의 方法을 誤할 뿐 아니라 現時에 流行하는 所謂 무슨 特効藥이니 무슨 靈藥이니 하는 藥種이 數百種에 有하나 少毫도 治療의 目的을 達치 못하고 反히 梅毒淋疾은 日益猖獗할 뿐이니 엇지 寒心치 아니하리요 於是乎아 本院은 歐米昨今의 最新特效藥을 原料로 하고 學理的 配劑法을 써 特히 我朝鮮人의 體質의 適合하도록 調製하야 許多한 藥種의 迷惑하야 路頭에 彷徨하는 可憐한 患者를 救濟코저 하는 바니 一般患者는 靈效가 如神한 本院의 專門藥을 一次試驗하야 調劑의 藥을 得하시면 비로소 本院의 名이 實與을 不誤다실 지로다

□他藥에 絕無한 本劑의 特長

本劑의 特色은 深達作用이 有한 點이니 于今 모든 學者의 研究도 全혀 此에 苦心하든 바 在來의 藥品은 深達作用이 無하야 多少間 藥效가 有하다 할지라도 表面的으로 若干의 效力이 有할 뿐이오 人體組織內部에 伏在한 菌을 消滅하는 作用이 無함으로 根治하기 極難하얏스나 本劑는 服用即時 體內에 循環하는 同時에 藥力이 骨髓에々지 深達하는 作用이 有한 故로 體內各部는 無論이오 膀胱尿道等 如何히 深部에 伏在한 菌이라도 撲滅하는 能力이 有한 靈力을 發揮하는 奇藥이라 故로 如何히 年久하고 如何히 頑惡한 性質의 梅毒과 淋疾이라도 本劑 一二劑면 容易히 根本的으로 卽根하는 것이니 本劑를 服用하는 者마다 異口同聲으로 稱讚妙한 藥이라고 驚嘆함은 當然한 結果이라

藥價		
梅毒	一期分 三十日分 一劑四圓五十錢	同二三期分 三十日分 二劑九圓
淋疾藥	慢性用 十五日分 二劑四圓	同急性用 十五日分 一劑二圓

(注文時注意) 前金은 郵料를 本院에서 負擔하며 代金引換은 小包料를 加算하며 藥品發送은 迅速히 하고 通知書는 親展封書로 嚴重秘密히 細細通知함니다
京城府 淸進洞 一二六番
花柳病專門藥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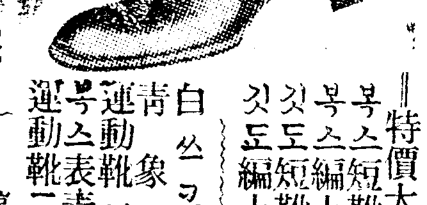
感謝廣告
一金五拾圓也
今般本楔總會時에 孝烈褒賞의 行함을 聞하고 閔泳徽氏께서 右記金額을 寄附하시니 本楔光榮뿐 不啻라 人紀振興의 恩澤이 普及하옵기 茲以謹告홈
大正十二年五月二十五日
茂朱養老楔 告白

獨逸이메루쿠製藥會社特製
婦人靈藥
獨逸帶下百病丸
半劑 [illegible]廿錢 / 一劑 [illegible]廿錢
輸入元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玉田洋行 振替京城五二一七
▲其他獨逸藥品各種具備
特約店募集

寸虫藥(촌충약)
絕大無二한 寸虫神藥
本劑는 現今東西洋醫學界에서 積年經驗에 奏效한 最新處方에 基하고 또 多數한 虫病專門大家의 實地研鑽을 經한 特效藥을 配伍한 寸虫病新藥으로 本院에서 特別精選하야 製劑한 者으로 其效力이 偉大迅速함이 形言키 難한 最新靈藥이오며 또 治療法이 便易하고 再發에 念慮가 全無하오니 寸虫患者諸君은 安心使用하시압
藥價 一劑 一圓三十錢
京城府仁寺洞貳百四番地
寸虫病專門藥院

이에 健胃康臟하야 身體의 健康을 圖하라면
靈積丸 大包六十個入五十錢 中包二十個入二十錢 小包十個入十錢 차지시오
이 藥은 古來의 遺傳하는 秘方과 最新科學을 綜合한 製造한 藥으로 不可思議의 消化力이 偉大함니다 이러한 症狀(체증, 구역, 토사, 곽란, 울, 사음식, 흉복통, 적근, 주석체)에 神効하오니
居家에 던지 旅行에 던지 日常準備하시오
腫仙膏 大包二十錢 小包十錢 第一이오
이 藥은 數百年間經驗한 神方으로 一次患處에 貼付하면 如何한 大腫이라도 少無苦痛하고 卽日拔根生新합니다 이러한 腫瘍(담종, 등창, 뇌후종, 발제, 습종, 合창, 독령, 우창) 사두창、(가종, 여향, 전비종, 소아태독)에 神奇하오니 躊躇치 마시고 試用하시오 確實奏効를 證明합니다
本舘 京城府寬勳洞三十二番地 藥種貿易 朝鮮商會
京鄉各地漢洋藥局各雜貨商店에서 發賣함

好職業
全朝鮮景品附賣藥 各地方代理店募集
今般本人이 各年十月頃에 許可第二一八三四號의 景品賣藥業과 區域은 朝鮮全道로 期限은 滿三個年에 何道何郡을 勿論하고 賣藥商支店主任을 募集하오니 有意諸氏는 勿失此好機하시고 本人이 來談하시던지 書面으로 何道何郡을 指定請求하시면 本所의 委任狀만 進呈하면 該道郡에서 許可를 得치 안니하와도 容易히 景品賣藥業을 得하오며 場所는 一郡을 一區域으로 二三郡을 合하야 一區域으로 하옵니다 以上을 詳細히 參照하시고 賣藥業을 하고자 하시는 諸氏는 本所로 申請하시면 詳細히 通知할 터이오 申請하옵실 時에 保證金으로 一道에 五百圓 一郡에 金百圓의 比例로 預히 本所에 納入積立하시고 委任을 受한 後營業하시을 得할 詳細한 事項은 面談、又는 書面으로 請求하시을 廣告함 但抽籤은 地方에 從하야 賣藥爲始日로부터 六個月或三個月마다 一次式함을 得함
京城府鍾路通六丁目二八六番地
全朝鮮景品附賣藥發賣所
全 祐榮
金 洛永

洋靴는 新流行의 型으로 製造堅牢한 太昌號에 限함
‖特價大大提供‖
복스短靴十一圓
복스編上十二圓
깃도短靴十二圓
깃도編上十四圓
白쓰크布表、皮底
青象運動靴一圓廿錢
복스表青象皮底運動靴二圓


洋靴、經濟靴 運動靴便利靴 乾油鞋고우底 卸散賣部
京城南大門通一丁目
太昌號
電話本局長二三四七番 振替京城一〇五七一番
△商品定價表進呈▽

中國政局

土匪交涉條件同意

(北京三日發電) 土匪의 山寨에 在한 人質은 尙且二十四名인데 土匪를 正規兵으로 하며 武器彈藥及相當한 手當을 與할 事를 條件으로 하고 人質放釋을 交涉하얏는데 土匪側도 大略同意하얏다더라

外人四名無償解放
外人捕虜가 尙今八名

(北京二日發電) 三日朝國際軍事委員의 一行이 到着한 後即時四名의 外人이 無條件으로 放釋되얏고 尙且土匪의 山寨에 拘禁中인 外人은 米人四名英人二名佛伊各一名으로 合八名이라더라

外人全部解放期
本月十日頃

(東京電報) 棗莊着電臨城土匪事件에 關한 交涉이 進捗한 結果來十日頃々지는 捕虜外人全部가 救出될 希望이 잇다는 意를 各方面에 通電이 잇섯는데 齊南上海方面에도 이 消息이 傳한다더라

外人保護辦法制定

(北京三日發電) 外交部에서 臨城事件에 鑑하야 外人保護辦法을 制定하고 各省에 通告하야 實行하도록 命하얏더라
一、土匪의 危險한 地方은 外人의 旅行을 禁止한 護照를 發行함이 不可함
二、外人의 住所姓名을 地方警察或地方長官에 屆出할 事
三、外人은 地方長官의 許可를 不得하고 五十里以外의 地에 旅行함을 不得함
此에 違反하야 事故가 發生하야도 中國政府는 責任을 負치아니함

土匪討伐事件商議

(奉天電報) 山海關下奉直商議의 結果土匪討伐外에 不得已한 事情에 因하야 動兵케 할 時는 奉直間互相通告하야 諒解를 得하기로 決定하얏다더라

南北兩軍大激戰
孫總統軍兵指揮

(廣東三日發電) 南北의 戰鬪는 今에 石龍을 中心으로 一大激戰中인데 孫大總統은 스사로 兵을 指揮한다더라

排日暴動益々蔓延

(廣東二日發電) 長沙의 日貨排斥暴動의 影響을 受한 廈門福州澳門等에도 日貨排斥運動이 激烈하야 日本船舶의 積荷가 激減한 故로 皆不少한 打擊을 受한다더라

廈門學生排日決議

(廣東二日發電) 廈門中國排日學生團은 排日을 決議하고 商店日本貨物을 取扱할 時는 沒收하겟다고 宣言한 故로 西貢新嘉坡에서는 木船에 貨物을 積載한 者가 激減하야 商船郵船、山下汽船도 大打擊을 受한다더라

重慶地方日貨排斥

(東京　) 四川省省重慶에서도 昨今排日暴動이 起한 結果日本汽船宜陽丸에 對하야 豚과 毛棉糸의 荷役을 遮斷하고 一切貨物의 下陸을 禁止하는 動에 出하는 터이라는 報가 잇다더라

長江一帶日貨驅逐

(東京電報) 今回長江의 暴動에 對하야 特히 注目할 現象으로 可見할 者는 單히 學生等에만 止치아니하고 地方의 商人에 個々지 躍起하야 日貨의 排斥에 努力하는바 彼等의 目的은 長江에서 撤底的으로 日本貨物을 排斥하라 함에 잇스며 現在蘇湖方面等은 日本汽船의 貨客에 全無한 狀態이오 長江漢口等은 恰似히 貨物의 集散期임에 際하야 如斯한 排斥을 受하게 된 故로 日本汽船은 全部重大한 損害를 蒙한다더라

日人避難準備

(上海三日發電) 暴徒의 一隊는 長沙南門街의 日本人飲食店을 襲擊하야 掠奪破壞를 擅行하얏스나 湖南政府는 何等의 取締한 바가 업섯고 學生과 暴徒는 各處에 集合密議하며 又日本人虐殺說이 流布되야 在留日本人은 二日부터 敢히 戶外에 出치 못하고 堅固히 閉門한 後不安裡에 一日을 過하얏는데 日本人中에는 漢口에 避難하라고 準備하는 者도 잇다더라

排日決議

(北京二日發電) 長沙의 排日暴動은 益々惡化되는 結果日本居留民은 武陵丸으로 避難하고 日本領事杉本氏는 伏見艦으로 移居하얏스며 暴徒側은
一、一週間內에 日本領事及日本商人全部를 驅逐할 事
二、不買同盟으로써 目的을 達할 事
二項을 決議하얏다더라

居留民避難

(上海三日發　) 長沙의 暴動은 益々猛烈함으로 日本居留民은 武陵丸으로 避難하얏다더라

日公使抗議

(北京電報) 長沙事件에 關하야 北京日本吉田代理公使는 長沙領事의 調査報告를 接受하고 又日本政府의 訓令에 依하야 中國外交部에 嚴重한 抗議를 提出하얏다더라

團匪賠金要求
白公使通牒

(北京電) 白耳義公使는 最近單獨으로 再次外交部에 通牒을 送하고 中國이 團匪賠償金을 金法으로 支拂할 件을 即時實行치아니하면 白耳義는 中國에 對한 從來、友誼的態度를 變更하고 特別關稅會議開催에도 反對하는 意를 通知하얏는데 此로 因하야 政府는 大히 焦慮하며 三十日에 公文書를 送하고 右의 事情을 訴하야 速히 同問題의 解決을 督促하얏다더라

內外債整理問題

(北京三日發電) 十二年短期公債二千萬元、豫備國庫債券七千萬의 發行及內外債整理問題에 關하야 財政總長과 中國銀行總裁王克敏間에 激烈히 相持하더니 其結果財政部에서는 畢竟中國銀行上海監理官의 職이 不必要하다는 理由로 廢止한 故로 同監理官의 梁啓勳을 畢竟免職되얏더라

顧總長同意案
衆議員에 送交

(北京二日發電) 三日國務院은 外交總長顧維鈞의 同意案을 衆議院에 送交하얏더라

威海衛還附交涉成立

(北東二日發電) 英中間의 威海衛調印交涉은 雙方의 條件이 妥協되야 二日國務會議에는 陳外交次長으로부터 交涉成立의 報告를 行하얏는데 同案件은 全部國會에 提出하야 國會의 同意를 得한 後調印하기로 決定하얏다더라

別報

(北京三日發電) 威海衛에 關한 英中交涉이 旣히 終結하야 條款의 協定이 된 故로 三日閣議에서 承認하고 即時國會에 廻付하야 其承認을 求하게 되얏더라

司法視察員派送希望決議

(北京三日發電) 中國治外法權撤廢하기 爲하야 本年十一月中國에 來할 各國의 司法法規視察員의 出發이 延期된 故로 右委員長張耀曾은 二日委員을 召集하야 如左히 決議하얏더라
一、十一月一日列國의 視察員의 來中을 希望할 事
二、延期의 必要가 有한 時는 十一月以後六個月以內에 期日을 定할 事
三、本決議는 外交部를 經하야 各國에 通告할 事

電報特權還收決定

(京北電) 中國政府는 東三省日中電報契約期間滿了될 來年十月以後滿洲에 在한 同條約에 基因하야 日本의 特許權을 回收할 事로 決定한 同時에 芝罘東州間의 海底電信及滿洲陸上電信契約에 修正을 加할 目的으로써 日本에 對하야 交涉하기로 決하얏더라

軍警督察署長後任決定

(北京二日發電) 北京의 軍警督察署長馬龍標氏의 免職事는 今日國議에서 議決되야 其後任은 張洪辰氏로 任命되리라더라

歐米情報

獨逸新賠償案內容
四箇年間延期、三百億金馬克

(伯林電) 獨逸官邊으로부터 探知한 바에 依하면 獨逸의 新賠償提案中에는 左의 案件이 包含되얏다더라
一、四個年間賠償支拂猶豫를 請求하고 此期間內에 獨逸은 契約을 履行하기 爲하야 諸般手段을 講究할 事
二、三百億馬克을 賠償金總額으로 하고 此를 一個年十億金馬克式即三十個年賦로 支拂하며 以上으로 獨逸의 支拂能力이 增加하면 此에 依하야 每年의 賠償金額을 增加할 事

佛白軍沒收金額
一千二百七十三億馬克

(伯林電) 獨逸帝國議會의 發表에 依하면 一月十九日부터 五月二十六日까지 佛白佔領軍이 沒收한 金額은 總計一千二百七十三億八千六百七十五萬馬克에 達한다더라

佛國、獨工場染料押收

(伯林三日發電) 佛國은『헤쿤트』와『루또윗히하ー메ㄴ』工場에서 合計七千噸(價格二億馬克)의 染料를 押收하얏는데 佛國은 賠償委員의 英伊代表에 對하야 右押收品의 分配를 取할 事를 求하얏다더라

英對露要求增加

(倫敦二日發電) 露國側은 英國으로부터 到來한 通牒에 依하야 其要求가 增加하얏슴에 驚愕하얏고 露國緩和的態度는 何等의 效果가 업슬줄로 觀測한다더라

伊太利政府信任案可決
豫算案도 大多數可決

(羅馬電) 五月三十日伊太利下院은 投票總數三百二十一、其中贊成二百三十八、反對(社會黨、共産黨、共和黨과 無所屬)八十三의 大多數로 政府信任案을 可決한 後投票總數二百五十、其中贊成百八十八、反對六十二로 過日來討議中이든 豫算法案을 可決하얏다더라

伊國新聞期望
伊內閣改造

(倫敦三日發電) 伊太利諸新聞은『무소리니』閣이 改造하야 比較的自由인『기오릿치사람도라』兩氏의 一派를 內閣에 入閣하게 될 줄로 期待한다더라

締約權能附與
駐米獨大使에

(倫敦三日發電) 米大統領『하ー딩』氏는 伯林駐箚公使에 對하야 米十間의 通商條約을 締結하는 權能을 與하얏다더라

州聯邦權利問題

(紐育二日發電) 紐育州知事『스미스』氏가 紐育州禁酒勵行廢止法에 署名하얏슴으로 聯邦의 權利와 州權利間의 優劣에 關한 政治的問題가 起할 줄로 看做된다더라

排日材料蒐集

(桑港二日發電) 下院移民委員長『알바ー트죤손』氏는 同地視察中에 排日材料를 蒐集한다더라

競馬施行案審議

(東京電報) 競馬의 實施에 就하야는 日本農商務省에서는 競馬法의 施行細則과 取締規則의 案을 作成中이든바 諸般故障이 生하고 又該法의 眼目인 勝馬投票券의 發賣는 競走에 對하야 一人一枚에 限定한다는 條項에는 當局은 如左한 程度에서 取締할가 頗히 苦心中인데 六、七月에 馬政調査委員會를 開하고 審議한다더라

關稅撤廢影響
物價와 關係
和田財務局長談

朝鮮多年의 懸案이든 對日本關稅障壁의 撤廢는 畢竟本年度初頭에 此의 實施를 見하고 唯酒類及織物만 暫時除外하게 된지라 只今試驗으로 這般移入稅의 廢止된 貨物의 最近一個年(大正十一年中)의 移入額을 見하면 一億一千二百二十一萬餘圓에 達하야 同年中日本及外國에서 來한 總輸移入額二億五千六百四萬餘圓에 對하야 約四割四分日本에서 來한 移入金額一億六千二十四萬餘圓에 對하야 約七割을 占한지라 然而此等의 貨物됨이 朝鮮에 其生産이 無하거나 或은 假令生産이 有하더라도 供給이 不足함으로 需要額의 大部分을 日本에 仰하는 者로 大約其六割은 吾人의 日常生活上에 直接需要되는 者오 他의 四割은 產業交通其他一般의 施設材料乃至生產原料品에 屬하는지라 酬하야 從來此等貨物의 移入에 當하야 要한 關稅及此에 關聯한 諸入費를 見하면 如左하니
一、移入稅 大正十一年中金額五百五十五萬二千餘圓인데 其移入價額에 對한 步合은 貨物의 種類에 依하야 異하나 平均五分弱에 該當하고
二、移入稅以外의 稅關諸手數料 推定額十九萬四千餘圓中 右는 最近一個年의 稅關諸手數料의 收入全額二十八萬二千餘圓中에 這回移入稅의 撤廢된 貨物의 負擔에 屬하는 者의 假量額이오
三、通關貨物取扱人手數料 推定額十六萬二千餘圓인데 此는 全移入品에 對한 最近一個年의 貨物取扱人手數料假量額二十三萬二千餘圓中移入步合에 依하야 七割을 移入稅廢止貨物에 割當한 額이오
四、以上三項의 諸費에 對한 金利二十九萬五千餘圓인데 此金利는 移入業者가 普通移入品의 土着原價(即日本買入價에 移入諸費를 加한 者)에 對한 步合口錢中에 包含되는 者로 口錢을 預算原價의 五分으로 測定하야 算出한지라
以上四項合計六百二十萬五千餘圓에 達하야 此를 移入價額에 對比하면 約五分五厘에 相當한지라 叙上의 諸經費는 關稅의 撤廢에 伴하야 全然消滅할 者인 故로 當該貨物의 朝鮮에 在한 市價는 其勢가 若干下落하여야 할 터이라 然而其低落의 程度는 (一)前에 計算한 以上일지오 (二)市價低落貨物의 範圍도 亦當面의 貨物에만 止치아니하리라 蓋從來移入貿易業者는 業務의 便宜上大概稅關所在地에 居住하고 種々鐵道沿線等에서 日本客主로부터 直接配布를 受하는 貨物이 不無하나 其數이라도 多數는 稅關所在地商人의 仲介에 依하는지라 然한데 關稅의 撤廢에 依하야 地方人은 從來와 如히 開港商人의 仲介를 俟할 必要가 無하게 된 故로 消費者와 生産者의 距離가 一步의 接近을 來할 情態에 置하게 되얏다 할지라 且又前出의 計算에서 諸經費에 對한 金利와 如한 것도 比較的低率로 測定한지라 是는 市價低落의 程度가 前記輕減額以上이리라는 所以오 更히 日常生活用品의 低落은 自然勞銀에 及하야 産業用品의 下落과 相俟하야 貨物生産費에 波及하고 結局一般物價에도 影響이 有할지로다 是即市價低落의 範圍가 移入稅의 撤廢하게 된 貨物에 不止한다는 理由라 勿論地方人의 日本直取引에는 其資產信用의 程度、運輸交通機關의 狀態等에도 關係가 不少하고 勞銀乃至生産費等에 對하야도 單純히 論斷키 難한 事情도 有한지라 故로 此等은 關稅의 撤廢와 共히 說明에 効果가 有하리라는 것이 안이나 將來逐漸하야 若干의 反響이 有하리로다
只今理論上此를 措하고 移入稅撤廢로 當該貨物의 市價上에 果然此影響의 認할 者의 有否를 觀察하면 大槪引下의 効果가 有하얏다고 言할만한지라(未完)

◎◎◎◎◎◎
接吻罪와 接吻臺

最近에 愛蘭의『베리와스트』에서 約婚한 男女가 街上에서 接吻하얏다 하야 一夜拘留를 當하얏다◇形式을 關係치아니하는 米國에서도 某場所에서는 接吻하면 罰金에 處한다◇紐育中央鐵道의 停車場『푸랏트홈』에서는 接吻치 못한다◇稍히 寬容한 設備하고 此處에서 接吻하는 것을 認許하나 如斯히 注目되는 處에서 接吻하기를 不肯하는 故로 頗히 不便을 感하는 者도 多한 貌樣이오 此臺를 接吻臺라 稱한다◇佛蘭西에서 往々히 接吻罪를 犯하는 者가 有하다더라

實業學校規程
改正에 對하야
長野學務局長談

六月四日의 官報로 實業學校規程의 一部가 改正된바 右는 現在朝鮮의 公立實業學校中에는 道地方費立學校組合費府郡學校費立等이 有한 바이나 近來各所에 學校組合立又는 學校費立의 學校를 道地方費立에 移管코자 하는 傾向이 有한 模樣인바 現行의 規程으로는 從來의 學校를 一應廢校하고 同時에 同種類의 學校를 新設함을 要하야 從하야 校名을 變更하지 안이함에 不拘하고 舊學校의 職員은 一旦廢職이 되고 新設學校의 職員으로 하야 更히 採用하는 形式을 取할 外에 無하야 取扱上不便의 點도 不尠한 模樣임으로 今般此等取扱手續을 變更하기로 廳議가 決定되야 其結果實業學校規程中에 第七條의 二를 追加하야 移管의 手續을 簡易히 하기로 된 것이라 即今後는 如斯한 境遇에는 單히 公立實業學校의 設立者變更으로 하야 認可를 受함으로써 足하고 設立廢止의 手續을 必要로 하지 안이하게 된 것이라 云々

穀市場賣買高
一進一退狀況

京城穀物現物市場五月中賣買高는 現物取引大小麥、玄米合計四百九十石延取引三萬三千三百五十石으로 現物取引은 殆히 問題가 되지 아니하며 延取引은 四月中에 比하야 價格의 變動이 잇서 自然히 賣買高가 增加한 傾向이나 大體有力한 買入이 업슴으로 市況은 恒常不振狀態를 免치 못하얏스며 今年一月以降各月延取引高를 見하면 左와 如하나 三萬石乃至十四萬石間에 往來하야 一進一退의 狀況이더라

一月	三四、五〇〇石
二月	四五、三五〇
三月	五〇、〇〇〇
四月	三一、一〇〇
五月	三三、三五〇

副業共進會
協議內容

去二日에 總督府各關係者와 및 朝鮮農會의 幹部가 西村殖產局長室에 會集하야 朝鮮副業共進會開催에 關한 協議를 遂하얏다 함은 旣報道하얏거니와 今에 其協議의 進行된 內容을 聞하면 互相間의 意見一致로 朝鮮農會가 此의 主催者되기를 引受하얏고 또한 總督府側에서는 朝鮮農會가 前에 此에 關한 國庫補助를 要求하얏스나 經費關係上此에 應하기 不能하고 農會의 計劃인 支出二千圓만으로는 甚히 小規模임으로써 此에 容認키 不能하니 此際에 一層副業品物에만 不止하고 또한 教育的動的共進會를 開催하자는 意見으로 大略協定된 模樣인데 然而右에 充當할 總經費는 總督府博覽會共進會經費三萬圓中의 二萬七八千圓及朝鮮農會의 支出二千圓과 各道地方費及地方農會로부터 二萬六七千圓及入場觀覽料大人二十錢小兒十錢軍人學生其他團體割引의 總收入一萬五千圓과 此外에 京城協贊會의 補助又는 寄附金의 二萬圓을 合하야 九萬圓의 總經費로 開催할 內容이라더라

手形交換高

京城手形交換所의 前週中手形交換高는 枚數二萬五千六百三十一枚 金額一千百八十萬四千四百八十圓으로 此를 前週交換高에 對比하면 枚數三千七百六十三枚 金額二百十四萬五千二百九十四圓이 增加하얏는데 前週는 月末決算期인 關係上增加하얏스며 今에 交換證書種類別交換高를 見하면 左와 如하더라

證書種類	枚數	金額
小切手	一八、〇七〇	六、九〇三、〇六三
送金爲替手形	七〇四	七七、八四三
約束手形	九六八	七六四、三五三
政府預金小切手	九七九	八四四、〇八二
郵便爲替證書	四、二五三	九五三、四〇三
公債々券	一六六	三三二、四二一
同利札		
雜證書	四四二	一、三六九、三三六
合計	二五、六三一	一一、八〇四、四八〇
前々週合	二一、八六八	九、六五九、一八六

朝鉄在貨狀況
五月下旬

五月下旬에 朝鐵在貨는 南行九千三百六十六噸、北行六千五百八十六噸、計一萬五千九百五十二噸으로 前旬末에 比하야 六百六十噸이 增加한바 大勢上前旬과 大差가 업고 오직 社用品에 約千五百噸이 激減함과 勝湖里發『세멘ㄴ도』의 激增으로 此를 補促하고 繼續하야 好調를 持續하얏다더라

品名	數量(噸)	前旬比較增減
大豆	三四四	△四二
米	九四二	一〇二
玉蜀黍	—	△七七
粟	一七一	一三五
麥	三七	△三七
雜穀	八九	△七九
野菜	二	二
木材	一、四四三	一三
薪炭	二八三	二三
石炭	二、〇二八	—
石材砂利	三四一	三〇五
鑛石	七八〇	四四八
鹽	八一九	三七七
鹽干魚	五〇	二四
豆粕	—	一八三
麥粉	三五七	△二五
綿織物	三四	三四
『세멘도』炭	四、一四二	一、二二六
金屬製品	四六	△一三八
繩叺莚	二〇〇	五四
石油	—	△二六
飲料品	六	△一四
綿	—	△一六
肥料	三三	二六
其他	二、八二三	七一一
社用品	九八四	△一、五〇六
計	一五、九五二	六六〇
省線行	三〇	△五四

朝鐵實行豫算
三千一百十四萬餘圓

滿鐵京城鐵道局十二年度實行豫算에 對하야는 從來種々의 觀測이 잇섯스나 鐵道局當事者는 四日午前此總額及內容을 左와 如히 發表하얏더라

收入部	
客車收入	一四、九二三、七一六
貨車收入	一二、八二九、三七六
旅館收入	八一四、四六九
其他收入	二、八七七、九四三
合計	三一、四四五、五〇四
支出部	
鐵道經費	二一、七一二、七二六
旅館經費	九二〇、五五五
支拂利息	四八三、二〇七
豫備金	八五〇、〇〇〇
計	二三、九六六、四八八
總督府納付金	七、四七九、〇一六

郵便爲替取扱數

大正十一年度의 京城府內郵便各局所取扱爲替受拂總數를 聞한즉 振出金額一萬六千七百八十二圓 口數二十九萬三千六百七口 支拂渡稅金額一千二百三十六萬七千七百十四圓 口數百千七萬五千六百九十八口로 此를 大正十年度에 對比할 時는 振出金額에 一分七厘가 減小하고 此에 反對로 拂渡金額은 一割四分二厘가 增加하얏더라

地方待遇職員中改正

朝鮮地方待遇職員의 加俸及定員에 關한 件中六月五日附府令으로써 左와 如히 改正하엿더라
第一號表를 別表와 如히 改하고 第二號表中『產業技師』를 削함
附則
本令은 發布의 日부터 此를 施行함
(別表省略)

鴨綠江橋開閉時刻

明治四十五年朝鮮總督府告示第二百四十號鴨綠江橋開閉時刻을 左와 如히 改正하야 大正十二年七月一日부터 此를 施行하는 旨를 六月五日附官報로써 左와 如히 發布하얏더라
一、午前五時三十分에 開하야 六時三十分에 此를 閉鎖함
一、午前九時에 開하야 午前十時에 此를 閉鎖함
一、午後二時에 開하야 午後三時에 此를 閉鎖함
一、午後四時四十分에 開하야 午後五時四十分에 此를 閉鎖함

臨時局部長會議

總督府局部長會議는 定例보다 一日을 繰上하야 昨四日月曜午後零時半부터 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고 一般政務에 關하야 審議한 바가 有하얏는데 此는 要컨데 有吉政務總監이 今五日에 渡東함으로써 一日은 前期하야 開催함이라더라

齋藤總督動靜

三日朝에 仙臺에 到한 齋藤總督은 同夜當地에 一泊한 後四日朝六時當地發로 水澤에 赴하얏다가 即時歸京할 터이라더라

政務總監渡東

有吉政務總監은 今五日午前十時에 中村秘書官을 隨伴하고 京城驛出發로 渡東한다더라

商況

大阪株式
六月四日前場

	寄	引
大株	一〇〇、〇〇	九九、七〇
新	七八、五〇	七七、八〇
鐘紡	三〇一、四〇	三〇二、〇〇
新	二八三、〇〇	二八三、〇〇
商船	……	……
新	一三、一〇	……
郵船	一〇三、八〇	……
新	……	……
東紡	一三四、〇〇	一二九、五〇

大阪三品
六月四日前場

	初付	止値
六月限	二五二、一〇	二五三、一〇
七月限	二五四、一〇	二五四、一〇
八月限	二五四、八〇	二五五、七〇
九月限	二五五、九〇	二五五、九〇
十月限	二五五、一〇	二五五、十〇
十一月限	二五五、一〇	二五五、九〇
十二月限	二五五、七〇	二五六、七〇

仁川府海岸町三丁目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㊅ 仲買店
店主 堆浩
電話長一八〇番

仁川
最新編纂 期米取引參考書
無代進呈
通信
公平하고 權威잇는 모든 强弱의 材料를 蒐輯하야 諸位의 判斷을 待하나니다
(福) 仲買店調査部

前場京取慘落
京取市場

休日前은 商勢不振하는 狀況으로 止한바 今朝大阪太新이 七十七圓二十錢과 鐘紡新이 二百九十四錢으로 入電되미 本場人氣는 軟弱한 中波瀾性을 帶한 形勢로 立會하야 仕手上關係로 一大混戰을 呈하엿더라
京取는 今週四十六圓十錢寄付하야 步調五圓과 四圓으로 下押하다가 其後四十錢과 二三十錢으로 九十錢까지 昂進하다가 結局四十錢에 止하엿고 來週는 四十六圓寄付하야 步調五圓八九十錢과 三四十錢으로 上下하고 其後五圓一二十錢으로 四圓八九十錢에 來往하다가 結局五十錢에 止하엿는데 手振에는 賣方吉見川崎坂田白井田中이고 買方新田市川中村有田南北村宗岡인데 約二千株取引되엿고
大新은 七十七圓七十錢寄付하야 步調九七十錢과 六圓五十錢으로 結局四十錢에 止하엿고
仁取는 一百〇八圓으로 跡不成하고 仁新은 三十九圓五十錢寄付하야 步調二四十錢과 二三十錢으로 九圓아지 結局八圓九十錢에 止하엿고
安取는 十七圓八十錢寄付하야 步調五七十錢으로 結局四十錢에 止하엿고
雜株에는 現信四圓實銀十二圓四十錢朝信七圓六十錢이고 其他株는 別無變動이엿더라

後場京取續落

前場은 幾分活氣로 止한바 後場大新이 七十六圓七十錢으로 入電되미 人氣는 依然立會하니 即短期大新은 七十六圓五十錢寄付하야 步調三十錢으로 五十錢에 止하고 安取는 十七圓三十錢寄付하야 步調三四錢으로 結局四十錢에 止하고 週間에는 京取今週四十三圓寄付로 七十錢에 止하고 來週는 四十二圓八十錢寄付하야 步調七八九十錢으로 上下하다가 結局八十錢에 止하더라

株界小言

京取에 對하야 慘落한 原因은 別無惡材料이고 日前金融難과 該株에 對한 業蹟을 多少悲觀하야 仕手上關係로 前途悲觀投資한 結果이로다 某通의 一說을 綜合하건데 這間某店買方針이 近間에 某派의 新規出動의 買方針으로 多少上勢되리라 推測하는 同時에 某處提供할 買物도 延着에 伴하야 該店에서 强派이든 某와 京取株一枚에 對하야 四十九圓五十錢價格으로 計定하야 賣買의 解合이 成立된 後幾日에 提供株는 到着하얏고 又는 今期의 京上勢도 別無動機이고 豫想하는 取에 對한 配當이 一割七分로 內定云하며 目前金融은 益々惡化하는 傾向이며 前途를 悲觀하고 投賣하는 同時에 其間魔術的强派의 某는 內面上途轉賣方針으로 表面上追賣投賣인지? 突然軟化하야 今年中으로는 希貫한 混戰을 呈하야 强派의 慘憺한 敗北로 約三十分間賣買를 中止하고 追證金即納後의 更히 波瀾을 演出하야 一大慘落을 呈하엿는데 最中軟派의 主力이든 新田이 和喰還賣場所를 窺示하는 行動은 日後의 如何한 形勢로 變할는지 頗히 注目이더라

京取週間取引

	前場 寄	前場 引	後場 寄	後場 引
今週	四六一〇	四四四〇	四三八〇	四三七〇
來週	四六〇〇	四四五〇	四三八〇	四三八〇

	前場 寄	前場 引
大新	七七七〇	七六四〇
仁取	一〇八〇〇	—
仁新	三九五〇	三八九〇
安取	一七八〇	一七四〇

	後場 寄	後場 引
仁新	三八九〇	—
仁取	—	—
大新	七六五〇	七六五〇
安取	一七三〇	一七四〇

大阪短期取引

	前場 寄	前場 引	後場 寄	後場 引
大新	七七二〇	七六三〇	七六七〇	—
鐘新	二一〇一〇	二九〇四〇	二九〇七〇	—

仁川期米
六月四日前場(又復反騰)

再昨後場은 大阪三十五圓九十錢의 弱報와 共히 二十九圓九十九錢에 始하야 二節九十六錢까지 小落하엿다가 阪地二節三十六圓十錢으로 〇九錢인 反騰을 受하고 依然三十圓十九錢々지 跳返한 後〇九錢으로 反落하엿다가 步調는 案外硬氣를 添하야 二十五錢의 反高로 結局十九錢에 止하엿는데 一休同前場에 至하야 大阪三十六圓三十八錢인 突飛의 高報를 接하고 立會하니
▲第一節 當限은 二十八圓四十五錢中限은 二十九圓二十錢先限은 三十圓四十錢으로 再昨止價에 比하면 二十一丁高히 初付하다
▲第二節 阪地二節三十四錢으로 三節亦三十四錢四節三十六錢인 依然緊張한 形勢를 寬觀하고 當限은 五十錢으로 中限은 二十五錢에 始하야 二十錢을 示한 後二十二錢々지 小高하고 先限은 三十五錢에 始하야 四十九錢々지 昂騰하엿다가 四十錢에 止하다
▲第三節 阪地五節三十八錢인 二丁小高를 接하고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三十錢으로 二十八錢々지 小崩하고 先限은 四十錢에 始하야 五錢々지 小高한 後四十錢에 止하다
▲第四節 阪地六節三十九錢과 共히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三十錢으로 二十五錢을 示한 後七錢에 始하야 六錢々지 返戾하엿다가 反히 一錢으로 下押한 後四錢에 止하다
▲第五節 阪地七八節共히 四十錢인 依然硬勢임을 接하고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二十八錢에서 九錢으로 八錢々지 反押하고 先限은 四十五錢에 始하야 九錢々지 反騰한 後八錢에 止하다
▲第五節 阪地九節三十七錢으로 止價三十四錢인 小落을 受하고 當限은 不成이나 中限은 二十六節一口로 先限은 四十八錢에 始하야 四錢々지 小落한 後五錢에 場을 止하니 高低의 差가 十四丁이더라

㋮及지의 對峙

日下先限戰의 形勢를 察하면 衛米五「六、七限을 連月買繫하든 ㋮筋은 八月限에 入하야는 俄然硬派로 轉換하야 再昨後場々지 七千俵石의 取組를 示한지라 其方針은 這般부터 旣히 五六萬石의 實彈을 整備하고 此로써 客月末에 納會한 當限과 現在의 當中兩限受渡에 供하기로 內定하엿는바 此는 算盤과 如히 安心落着되고 八月限은 암흐로 夏季上期를 當한 米임으로 此의 前途를 樹하는 模樣인데 此로부터 買方針은 漸次擴大할 傾向이 有하며 此와 反面으로 太筋은 亦賣方針을 取하야 八千餘石의 取組를 示하고 前途形勢가 何如할는지는 未來의 事이나 賣方이 十三店買方이 七店인 中에 局勢는 買方이 稍히 優勝하더라

初付	三十四圓四十錢
止値	三十四圓四十五錢
高値	三十四圓四十九錢
安値	三十四圓三十五錢

公定價格

一節	三十四圓四十錢
二節	三十四圓四十二錢
三節	三十四圓四十三錢
四節	三十四圓四十四錢
五節	三十四圓四十八錢
六節	三十四圓四十五錢

四日後場(電話)

初付	三十四圓四十九錢
止値	三十四圓五十一錢
高値	三十四圓六十錢
安値	三十四圓四十九錢

公定價格

一節	三十四圓四十九錢
二節	三十四圓五十七錢
三節	三十四圓五十八錢
四節	三十四圓五十一錢
五節	三十四圓五十一錢

取組高
當限 二萬六千石
中限 六萬七千五百石
先限 一萬四千五百石
賣買總石數 十四萬五千七百石
本期總取組高五、五〇六、三〇〇

京取市場賣買價 四日

株名	今週中 前場	今週中 後場	來週中 前場	來週中 後場
京取	寄四六一〇 引四四四〇	—	寄四六〇〇 引四四五〇	—
仁取	一〇八〇〇	—	—	—
同新	三九五〇	—	—	—
仁銀	六〇〇	—	—	—
同新	二三〇〇	—	—	—
外銀	四〇三〇	—	—	—
同新	一三八〇	—	一三四〇	—
鉄銀	—	—	—	—
鮮銀	四五八〇	—	—	—

株名	今週中 前場	今週中 後場	來週中 前場	來週中 後場
同新	三二五〇	—	—	—
漢銀	四〇五〇	—	—	—
同新	一〇三〇	—	—	—
韓一	四〇〇〇	—	—	—
東拓	二一五〇	—	—	—
同新	一四八〇	—	—	—
鮮土	二六五〇	—	—	—
朝紡	一三五〇	—	一三五〇	—
滿毛	七三〇	—	—	—
京電	五六〇〇	—	五六〇〇	—

株名	今週中 前場	今週中 後場	來週中 前場	來週中 後場
電興	三二〇	—	三四〇	—
朝郵	三一〇	—	—	—
殖鐵	七三〇	—	—	—
中鐵	三三〇	—	—	—
同新	一〇〇〇	—	—	—
滿鐵	一〇八〇	—	—	—
同新	三四〇	—	—	—
東亞	一三〇	—	—	—
同新	二〇	—	—	—
朝煉	—	—	—	—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仁川海岸町三丁目
㋮ 廣澤正次郎
電話 長七〇番 一六五番 一六〇番
仁川宮町廣澤米穀部 長電話三〇七番

米豆餘話

▲今으로 場面은 더욱々 興味가 有할 것이며 從하야 男根諜士는 瞬中飛躍하는 그 光景을 壯觀할 것이야 ▲此로부터 一般에 注目할 것은 變質期도 目前에 接近하고 天災期도 眼前에 當到하얏다 ▲現下三十圓臺에서 激戰을 開始한 硬軟兩軍의 運命이 如何할는지 此에 攻究할 일이야 ▲二十一圓七十九錢을 新春以來의 最低로 하고 連月棒上하든 當地形勢는 稍히 頓重의 態를 示하더니 更上一層의 三十圓臺는 果然何如한 原因을 胚胎함인가? ▲地方農家의 廻着은 全혀 杜絕하엿다 하야도 過言이 안인데 前途高價를 背景한 所以인듯하다고 ▲그생각이 이런 遺殘存米는 昨年同期보다 豐富함은 官民의 樂觀을 招致할뜻하나 그러치도 못한 模樣 ▲何오히면 農作後의 事임으로 其間濫費力이 擴大하야 오히려 端境期의 供給에 缺陷을 生할 杞憂가 不無하다고 ▲此와 反映으로 尙今々지의 天候는 何如하뇨 無히 各地民心이 安靜하야 植付를 着々進行할뿐 不啻라 아우리 人民의 消費力이 增進하엿다 할지라도 本年度의 供給不足說은 到底히 準信할수 업는 일이라고 ▲變質期에 臨迫한 農村의 抱藏米도 此로부터 放出치 안이할수 업는 時期임으로 正米도 一段瓦落을 見하리라고 軟派는 亦主唱 ▲襲者歐洲戰亂以後로 五十一圓七十錢까지 暴騰하든 時勢가 大正九年度에 至하야 三千三百四十六丁의 變動을 生하고 ▲十年度에는 二千二百十丁十一年度에는 一千七百十五丁인 每年變動의 差가 縮少함을 觀하면 本年度에는 旣히 八百五十丁의 反騷를 示하엿슴으로 逐年縮少하는 其程度에 適當할 뿐 하나이쪽도 모든 物價가 安着되지 못한 時代임으로 果然預言키 難해 ▲何方이 凱旋을 奏할는지 現下부터 開戰되는 天災期의 活舞臺의 그 光景을 볼 일이야(仁川餘話子)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仁川府港町
張 張最根
電話長二七二番
電略『チ』又는『장』

仁川府海岸町三丁目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カネマス
盃 仲買店
電話長三三一・七六三番
電略『マス』又는『익』

光正團員의 控訴公判
檢事는 控訴棄却을 要求
판결언도는 오는 팔일이라고

中國長白縣十五道溝 金瑞雲 二五
同十六道溝小德水里 金昌鎰 二二
韓鎭述 二四

전긔세사람은 일즉이 광정단(光正團)이라는 단톄를 모아가지고 조선독립군자금을 모집할 목뎍으로 폭탄(爆彈)권총(拳銃)등속을 휴대하고 작년구월 이십오일경에 압록강(鴨綠江)을 건너와서 함남(咸南)삼수군(三水郡)에 이르러 그고을 령성면(嶺城面) 경관주재소를 습격하야 송정(松井)순사를 그자리에서 사살하고 굴니(堀內) 김(金)두순사에게 중상을 식이고 리순사의 복장과 뎌금을 강탈하고 다시 전주(電柱)를 절단하야 통신을 방해한 사실로 함흥(咸興)디방법원에서 전긔세사람에게 각각 무긔징역에 처한것을 불복하고 다시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뎨긔한바 작일오전열시에 동법원뎨칠호법뎡에서 공판을 열고 전택(前澤)재판장의 담임으로 강본(岡本)검사가 립회한후 전긔사람에게 각각 공소기각을 요구하얏는데 언도는 오는팔일에 하리라더라

民大地方部

충북보은군(忠北報恩郡)과 황해도평산군(黃海道平山郡)에서는 각각군민대회의 원의로 민대디방부(民大地方部)를 조직하고 회무집행에 착수하얏다는데 당선된위원의 씨명은 다음과갓다더라

報恩郡地方部

▲執行委員長孫顯秀 ▲常務委員朴昌彬 李共東 黃贊寬 崔永俊 李秉植 ▲會金保管委員崔秉完 張斗煥 崔鍾洙 宋在旺 ▲監查委員申泰完 崔東楠 盧性春 ▲執行委員金宅熙 安鍾健 金聖熙 李吉善 金在恩 李挺奎 金陽熙 李志榮 羅相輔 姜慶秀 金星旭 魚秉杵 李仁善 權德杓 洪皮敎明 尹世勳 兪台植 洪祜晚 金潤植 柳炳喆 崔鍾洙 洪承謙 金秀義 李漢存 宋奭憲 金淸榮 崔元根 李錫來 鄭轍鎬 李淸棟 梁錫煥 韓昌錫 梁鳳煥 趙東鉉 宋熙用 韓錫九 金萬春 柳哲秀 金基順 金永淳 朴光善 魏鍾世 吳鴻默 金基鳳 金基善 宋在龍 黃晉寬 姜永澤 宋義用 金潤權 李明燾 安舜相 柳孝俊 安京鎬 金泰東 李正雨 羅相翼 任道宰 兪昌植 兪鎭明 朴道熙

平山郡地方部

▲執行委員長金鍾瀚 ▲常務委員閔泳義 愼九範 李東洛 金鍾春 申錫麒 權五鳳 金東元 閔晚植 趙泰錫 延在璿 尹茲學 許鎌 閔明植 兪仁溶 崔殷植 申台均 趙鍾龍 徐洪駿 崔憲龍 李鍾緖 徐璟根 嚴允榮 李圭東 李德來 張萬壽 李允永 金壽玉 ▲會金保管委員閔明植 閔勉植 ▲監査委員尹茲學 金東元 金正春 秦貢濂 李駿夏 尹宗洙 許鎌 李東洛 張再植 孫宗熙

朝鮮人의官舍問題
일본사람은 관사를주면서도
조선사람은 웨안이주느냐고

근일에 조선인관리들은 관사(官舍)문데로 만흔불평을품고 고등관이상의관리들이 서로단합하야가지고 이에대하야 크게운동을일으키고자 방금계획중이라는데 이제그사람들의주장하는바를들으면 사람으로먹고입고집이잇서야살수가잇는것은 조선사람이나일본사람이나한가지라 그러면조선총독부의 소속되는관리는 조선사람이나일본사람을물론하고다갓흔보수를

주어야만 지당한일이라하겟는데 현재총독부의제도를볼것가트면 급료에다대한차별이잇는것은고사하고 일본사람에게는 고등관의명석만잇스면 일본에서디관되는사람의관사보다 더욱화려한집을주어 안주한셩활을하게하나 조선사람에게는총독부에대한공훈이나잇서 친임이나칙임의대우를밧는사람이외에는 한간의집도주는일이업슴으로조선

관리들은 간혹 도리사관(道理事官)이나군수를어더하드라도 일홈조흔고등관이로되 그의셩활하는내막을 살펴보면 적은월급과집조차입는형편에쓰는것은만흔 형편에쓰는것은만흠으로 자연빗을만히지게되며 필경은극히비참한디경에 이르게되고마는것인데 총독부에서 과연진맘으로 조선을위하는 정치이오 친절한생각으로 조선인을 관리에 등용한다하면 물론 조선인에게도 관사를주어서 관리생활의고통을 덜게하는것이맛당한일이라 생각한다고말하더라

當局ㅅ장차陳情
관사를쪼겨나는고양군수

관리조선인관리의관사운동열에 별항과갓치성한데 이에 경긔도령에서는 조선인군수중에서특별히 고양군수오태환(高陽郡守吳台煥)씨에게대하야 동씨가 부임할당시에 사직단(社稷壇)안에잇는협착한가옥몃간을 소위관사로지뎡하야주엇다가 금년부터 경성부에서사직단을공원으로만들게됨에짜라 그집이나마자연을너나오지안이하면안이될형편임으로 동씨는 경긔도령에대하야 관사를다시한곳뎡하여달나고루차말하엿스나 여러가지의빙자로 오늘날까지락착을지어주지안이함으로 동씨는 원래간조선인관사문데로 재등(齋藤)총독에게대하야 진뎡을할계획이라더라

曙光會를創立
전북김뎨군빅뎡들이 조직하고임원을선뎡

전라북도김뎨군(全北金堤郡)군니에거주하는 빅뎡들도 수평운동을 찬성하는마음으로 서광회(曙光會)를발긔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지난달이십팔일에 동군읍내에잇는 텬도교당안에서 창립총회를열고 림시의장김상숙(金相淑)씨의 강개한어조로 취지를설명한후 계속하야의사를 진행하고 임원을선뎡하엿는데 씨명은아래와가트며 린근각지에서 당지유지제씨의 축사가잇섯고 동일오후륙시에 폐회하엿다더라

幹部 元永彩 趙昌勳 元永昌 申東日 金相淑 李壽男(김대)

時代日報出願
東明을變하야

지난이일에청원을데출

작년부터최남선(崔南善)씨경영하에 발간되든주간(週刊)동명(東明)은 그간일간신문으로 발간코자하야 동사의간부일동은 적극뎍으로활동을하야오든바 지난이일에 청원을데출함으로 인가가나오면곳 발간할터이라하며 동명데이권(第二卷)에서 당분간휴간할터이며 신문의일홈은 시대일보(時代日報)라고한다더라

音樂演奏
鷄鳴音樂院主催

십사일에청년회관에서

시내뎡동(貞洞)에잇는 계명음악원(鷄鳴音樂院)은 장래에 사립음악학교를 건설할준비로 현재남녀학생을 여명에게 각종의음악을 교수하는중이라함은 이미본보에 보도한바어니와 금번동원에서는 학생들의기술을 련마식히고 음악사상을 보급케할목뎍으로 오는십사일(목)오후팔시부터 시내종로청년회관안에서 데일회로 음악연주회를 개최할터이라는데 당야는 남녀삼십여인의 출연이잇서서 성악과긔악이 실로 자미잇슬터이라하며

▲동원교사 홍란파「洪蘭坡」씨가 편곡(編曲)한자로 동씨의지휘아래에서 이십여명단원에 출연할터인바 「오ー케스트라」의「합창」은 조선에서는이번에처음임으로 이것을긔념하고 축하하기위하야 「세야마야악긔뎜」에서는 특별히화환(花環)한개를 긔증할터이라하며 입장료는 일동에일원, 이동에 오십전, 학생은삼십전이오

입장권은 종로일뎡목 대원당(大元堂)시계뎜과 종로청년회관과 「세야마야악긔뎜」과 「동아부인상회」에서발매한다는데 이번음악회는 비록학생들의일이나 조선음악계에 신진음악가(新進音樂家)를 내여보내는 의미에잇서서 가장여러사람의긔대와 촉망이만타더라

電話交換所增設實施
本局、龍山、光化門
래월초순부터는실행될터인바
이제부터는『코ー과몬』뎐호라

건축중이든 광화문(光化門)뎐화교환국이 이제는락성이되게되얏고 거의전습을마치게되얏슴으로 오는칠월일일부터는 실시할터이라는데 종래에는뎐화를걸라면 본국(本局)과룡산(龍山)두곳이든것이 이제는광화문국한곳이더성겨서 룡산이나광화문국이라고 먼저부른후에 뎐화번호를부르게되얏다는데 이번에 광화문국으로변한구역은 청량리(淸凉里)를위시하야 동소문안에서 련차선로로 북편은모다광화문국으로부속되고 황금뎡네거리에서 경성일보사압으로 서소문통으로부터 합동(合洞)아현리(阿峴里)까지의 북부전부는광화문국의소관임으로 일반은이경계를 주의하야뎐화를걸기를바란다는데

이제부터는 본국번호와광화문국번호가 갓흔것이잇슴으로 특히주의하야 본국이면 본국 광화문이면 광화문이라고 먼저부르지안이하면 안이되리라더라

改正된電話番號

보통뎐화 로기뎡된번호는 이전에는 뎐화번호하나를두고 구내뎐화(構內電話)만이든곳에는 반다시 륙천몃번이라고하얏스나 광화문국으로부속된관내에는 륙천번호를폐지하고 보통뎐화번호를 사용하게되엿다는데 이번에 변경된번호는 아래와갓더라

▲一〇〇番李王職▲六〇番漢城銀行▲三五〇番韓一銀行▲四〇〇番京城日報▲四一〇番京畿道廳▲二〇〇番總督府醫院▲一〇番專賣支局▲五六〇番貞洞分室▲六〇〇番覆審法院▲二六〇番中央試驗所▲五〇番遞信局

그외에도 개인으로몃개소가잇스나 터키레는데 다발표할수는업스나 곳으로말하면 한일은 힘동뎐문지뎜갓흔곳들인바 한개는六四三번이오 한개는一六八二번임으로 一六八二를곳치여 六四四번으로 순번을하얏다더라

最後戰鬪의雌雄
萬餘觀衆의應援聲裡에서
빗나고명예잇는우승긔쟁탈전
최후영관은상우단용사에게로

第一回豫選戰

본보인천지국주최인 뎨삼회전조선소년야구대회는 예뎡과갓치 작일에일대성황리에서 긔최되엿다함은 이미작일에도 그일부를보도한바어니와 뎨일회예선전(第一回豫選戰)이 현홍운(玄鴻運)씨주심(主審)하에 경기가시작되여 인보(仁普)대미우(米友)가 첫싸홈을하야 삼뎜대일뎜으로 인보군이승첩한후 계속하야싸홈이뎜뎜

▲虎勇團對活麗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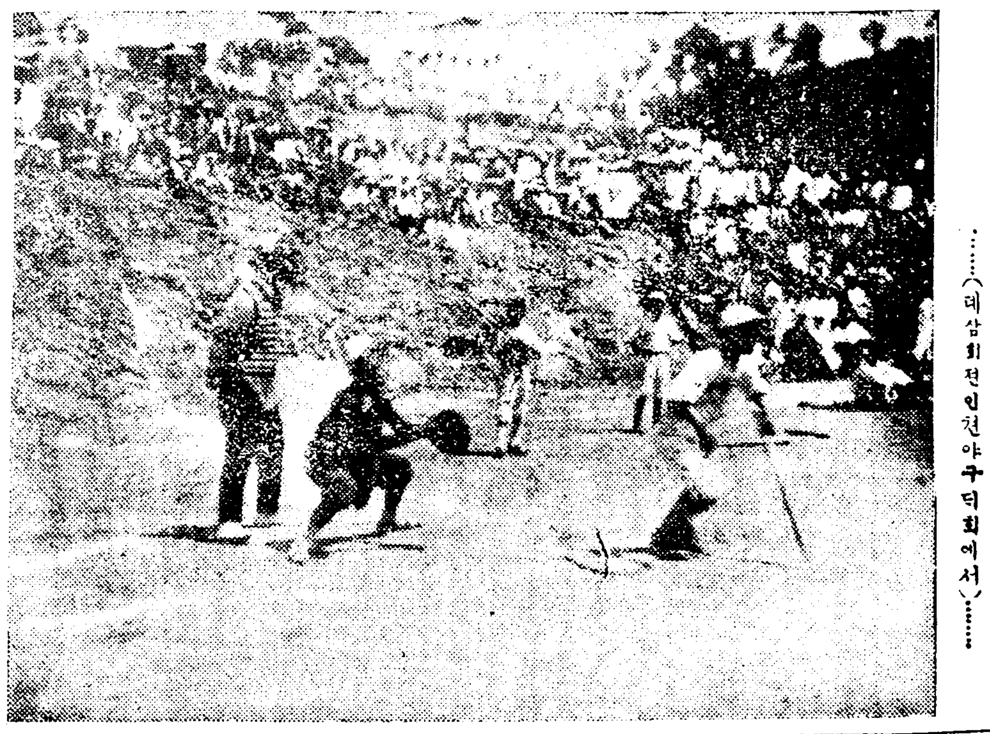
이두「뎀」의용사가 심판의개전선언을좃차 전투를 개시하얏는데 처번에는량편이다득뎜이업섯고 데이회에는 활려단이한뎜의승리를어더 의긔가비등하며 삼차싸홈에일어나자 호용단일반선수는 일층분려한바 터번에다섯뎜을엇게되자 활려는다소긔운이상되여 한뎜도엇지못하고 다시네번재싸홈을계속하며 호용은 활려의철통가튼전선을버 ... 하고다시네번재싸홈을계속하야 뎨오회에는 두뎜을엇게되는반면에 다시한뎜도엇지못하고 전사의긔운을 전적으로막을닷엇다

▲全仁普對仁培普

회복하야주기로써싸혼결과 다섯비저싸홈에는 두뎜을 도로혀호용이엇게되여 활려는긔운이쇠진됨인지 좀잇섯슴으로못혜싸홈에 실수가잇서 호용이승첩하얏더라 ... 선전포고가장니를울니자두「뎀」은 그자웅을판단치못할만큼 기술이서로가타야 첫싸홈에는 두편이다득뎜이 업섯스나 두번재싸홈에 두가치득뎜이엇섯스나 인비는역시한뎜도엇지못하고 다시세번재싸홈을하얏스나 전인보군은두뎜의승리를엇고 인비군은국력으로이것을회복하고저싸홈을하야 자웅을결하고져 하얏스나 마츰내 오뎜대이뎜으로 전인보군의 승리로 도라가고 전적으로막을닷엇다

▲商友對全仁普

이때에 여러사람의 박수갈채리에 첫싸홈에드러선 상우단과 전인보군은 인보군이 첫번싸홈에두뎜을 엇고 삼회에이르기까지 두편이 다시 서로다토다가 네번재싸홈에 이르러다시 상우군이서뎜을엇게되며 전인보군은 극력으로 소두뎜을어더 상우군의승리로 도라가는데 박수소리는산곡에울니며 상우군의질기는소리와아리와가튼 「戰史」를남기고씃흘맛치엇다



『엠파이어』의선전포고가장내를울죽 ... 공세와수세를상지하는광경 (대삼회전인천야구대회에서)

명예의우승긔를타고깃붐에넘친상우단일힝……(대삼회전인천야구대회에서)

	1	2	3
▲仁普(勝)	三	一	〇
米友	〇	一	〇

	1	2	3	4	5
▲虎勇(勝)	〇	〇	五	〇	二
活麗	〇	一	〇	二	〇

	1	2	3	4	5
▲全仁普(勝)	〇	二	三	二	三
仁培	〇	〇	一	一	三

이상과가튼전적으로 일회예선전에 승리한「뎀」와부전승조이든상우단(商友團)을합하야 네단톄의캡「헤드」에 모히여추첨으로 상대조(相對組)를 결뎡한바다음과갓더라

▲第二回豫選戰 參加團體

▲仁普對虎勇
▲商友對全仁普

이와갓치 결뎡이되자 경성에서본대회를위하야 먼길도불구하고온 마춘식(馬春植)씨주심(主審)하에 데이회예선전이열니엿더라

第二回豫選戰
▲仁普對虎勇

「엠파이어」의선전포고가장내를울족 ... 야젓는데호용이다소실수로인하야 ... 나아갓슴으로관람자의조리는가삼을엇게되여 일승일괴로기울음업시 뎜을취하고 사회에는 상우가두뎜을어든후 삼회에 또한호용어터 ... 온전정할길이업서더욱긴장하얏더라

戰鼓方鏜

	1	2	3
▲仁普	四	二	〇
虎勇(勝)	二	六	八

	1	2	3	4	5
▲商友(勝)	二	〇	〇	三	〇
全仁普	〇	〇	〇	二	〇

명예의영관은상우단으로

이회예선전을맛치니 써는정히오후네시반이엇슴으로 삼십분간휴식을한후 다섯시부터 다시현홍운씨주심하에 최후결승전(決勝戰)이열니엿다 이싸홈은최후로 자웅을결단하야내는싸홈임을짜라 선수는물론이오 일반관람자까지 마음이긴장되여 선수의동작은 한아도세치안코 주의하야 조리는가삼을진뎡치못하고 잇스며 응원의소리는격렬하야지는가운데 최후의데진은 시작되여 두편용사가어우러져싸호는형상은 날넌범이 밥을다토는듯 나는룡이 구술을어르는듯 심히장쾌하고도 용감한거동은 누구나놀나지안을수업섯다 첫번에호용이두뎜을엇고 이회에 상우가석뎜을어든후 삼회에 또한호용이한뎜을취하고 사회에는 상우가두뎜을엇게되여 일승일괴로기울음업시 ... 다시는한뎜도엇지못하얏스나 상우는데칠회에가서셰뎜을다시엇게되여 명예의 승첩(大勝捷)은상우단으로도라가고말앗스며 상우단의 질기는형용을무엇으로비할지? 승리를자랑하는질기는소리 하날을움직일만하며 각선수의「즐여」소리는 세인안의 뢰묘텬하고 말잇다 이와갓치 명예의월계관은 상우단의두상으로 도라가고말엇는데

優勝旗授與式

이상과갓치최후우승이상우단으로도라가자 본보인천지국에서미리준비하얏던 우승긔(優勝旗)수여식을거힝하엿는데 본보인천지국장의 간단한치사가잇슨후 우승긔와 아울니 경성자하청년회(京城紫霞靑年會)에서 긔증한화환(花環)과 각처에서 긔증한원형패(圓形牌)와 은(銀)「메달」「메달」이라는상품을수여하고 경성제일운동구뎜(京城第一運動具店)에서 뎨공한「메달」을 각선수에게 수여하얏스며 일반관중의 만세성으로 오후칠시경에 폐회하얏더라

最後決勝戰의戰跡

	1	2	3	4	5	6	7
商友	〇	三	〇	〇	三	(大勝)	
虎勇	二	〇	一	〇	〇	〇	

白苧四十一疋을窃取
夜警巡査에게發見逃走
작일새벽세시에동창상회에서
절취하야가다가삼십전만손히

작일오전세시경에 아즉날은밝지도안이한경성시내에는 잇다금주정군이왓다갓다할뿐인데 황금뎡삼뎡목순사파출소순사는 야경을하느라고 파출소압헤 섯슬때에 엇더한로동자한사람이 짐차에다가물건을싯고 그우에는헤부터물덥허가지고 길로 지나가는고로 자세히가서본즉 조선모시를 그러케실엇는고로 그대로보내이고 다시성각하니 시외에서 그셰에올리는것이

시내에서

어듸로운반한다고하야도 덥뷴도엄기전시벽에 운반하는것은 아모리하야도 이상한고로 묘사를하야보랴고불넛스나 대답도안이하고가는고로 순사는더욱의심하야 뒤를싸라갓드니 그자는도라다보며 또한쌜니가다가 나종에는짐차를버리고 다라나버림으로 그셰에는도적인줄로확실히알고 힘을다하야

테포로자

하얏스나 어두운갈목에 자취를감추어서 마침내테포치못하고 도라와서본즉 모시가사십일필이오 그것에는동창상회(東昌商會)라는표가잇스며 엽헤는가지고가든자가 입엇든저고리한벌이잇스며 그속에는지갑이잇는데 아무것도업시 단지돈삼십전이잇드라하며 그모시갑은 현가오빅여원어치인바 동창상회로 뎐화를걸어본즉 일혼것이 사실이라는데

校長의失態

남의사신을뜨더보고 고소를맛낫다가취하

전북(全北)정읍군(井邑郡)공립보통학교장으로 고부면(古阜面)공립보통학교 교장소오정오랑(小玉政五郞)씨는 지난사월중순에 그학교훈도 장곡천현서(長谷川憲)씨에게로 일본서온사신(私信)한장을 바더서본인에게 전하지안이하고 자긔가사무상속에 감추어두엇다가 이일이 본인에게발견되여고소를 당하얏는데 고소를데기하얏는데 그가튼짓을 하는교장에게 자뎨들을보낼수업다고 의론이분분하야 학부형들은 교장의셰권유로 고소를 취하하얏다더라

白丁의調査
경긔도경찰부에서
장리를넘려하야서

경긔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에서는 근일에 성힝하는수평운동(水平運動)에대하야 그의닉용이재벌이잇스며 그가지고부르는계급타파(階級打破)를 극도로부르지져서 현재정치제도에리롭지못한뎜도잇슬분만안이라 그운동을 아는사람중에 간혹사회주의(社會主義)를선뎐하는일도잇슴으로 경긔도관니에잇는 빅뎡(白丁)에게로 던파될가 넘려하야 방금동도관내에잇는 빅뎡들의힝동을 비밀히감시하야 만약전긔와 가흔힝동을하는사람을발견할셰에는 단연한취톄방침으로 관내각경찰서에 명령하야 바야흐로 빅뎡들의셔산뎡도와 성질이 엇더한것과 교육의유무를 됴사하는중이라더라

痛哭도亦罪

제외동포를성각하라고 통곡하고경찰서에테포

전북(全北)정읍군(井邑郡)읍니시기리(市基里)에서 포목상하는 조시영(曹時英三〇)씨는 지난오월이일에 돌연히경찰서에테포되야 방금취됴중이라는데 그내용을드른즉 지나음사월초간일에 정읍시거리 상뎜원이십여인이 연회를 그곳초산이라는곳에서 개최하고 질기든중에 전긔조씨는 돌연히통곡을하면서

말하기를 남북만주(南北滿洲)와 「서빅리아」에잇는우리동포는 하로십전의「쌔ㅇ」도못먹어 유리기걸하는데 우리는무슨복으로 정디운강토안에잇스면서 적지안흔금전을랑비하는것은 신명에게부끄러운일이니 여러분은 성각하라하며

판광자의

그중화인수(黃貞)라는 남의질거위하는연회에 공연히나서서 인정미터업는울음으로 파흥한다고 안정이되다가 그만상회하엿는데 그것은 남당디경찰서고등계에서 조위를테포하야 무슨성각으로 피의동포를위하야 통곡하엿느냐고 방금취됴중이라더라(정읍)

詐欺犯人의逃走
腸窒扶斯를治療中
작일새벽세시에
병복을입은채로

일측이 본보에보도한바와갓치 인천에서오는 지씨(池氏)의내외를 화천뎡(和泉町)엇던집으로 다리고가서 오십원을빌녀준다고주마고 피도를올니다가 가지고다라난 신태여(申泰儉)는 본뎡서에서 인치취됴중이든바 지난이십구일 무려장질부사병에걸니여 신음함으로 순화병원(順化病院)으로보내여치료중이더니 작일새벽에 간호하고잇든자의의정도모르게 자취를감추어버렷슴으로 방금수색중이라는데 그자는 음식도먹지못하야 극히쇠약하얏슴으로 걸음도못하든터에 병복을입은채로도주하얏다더라

不許可로中止

보성회(勞農會)주최와본사고양지국(高陽支局)후원의 각희대회(角戱大會)는 데일인지작삼일오후에지하고작일터회는 당국의불허가로중지하엿더라

集會

▲시내중앙긔독교청년회관에서는 금일오후여덜시에 그회관안에구강기성(口腔衛生)활동사진회를개최하고 일반에게무료로관람케한다더라
▲조선불교대회(佛敎大會)에서는 금일오후팔시부터장곡천뎡십칠번디동회관에서 강연회를개최할터이라는데 연데와연사의씨명은아래와갓다더라

彌陀의大願 李潤鉉
定心應物 李元錫
拔苦與樂 寺西嘉彥

잔소리

▲시내종로소학교 데사년급선싱한분은 위엄이잇지나평장한지 어린학싱들이그선싱을 뎍하야범이나맛난것갓치무서워한다나 ▲소학교선싱은 어린아희들의동무가되다십히하여야만한다는말을 붉엇는데 그와갓치어린학싱들에게 위엄만부리는것이 올흘는지? 그러한데다가 차별이잇지나십한지 여명학싱외에는그러치안이하나 그외에는 짜리기와차기를일수하야 이말을들은학부형들은 뎐학을식히고자 운동이심하고별셔 서대문소학교와 남대문소학교로 뎐학한학싱도잇다한다 ▲그중에도조선학싱은더군다나 차별이심하야 학부형의고통이심하다한다 근래에는입학을식히자면 그전과거나다름업시 힘이드는어셔에 조선사람은뎐학도용이하지안코 여간걱정이안이라한다 ▲무엇이니 무엇이니하면서 어린학싱에게아지차별한다는말이 거짓말이나참말이나 그말을알게되는것을성각하면 과연엇더한가 말이지 그선싱이 얼마나잘하연 그어린아희들에게 그런성각이들게하느냐 밉어야이왕이면어려서부터알어야하겟다는성각인지도모르지만은

大氣豫報

曇
日出 上午五時二十分
日入 下午七時四十分

訂正

本報六月三日發行第九百九十七號三面「仁川野球大會는今日」이라題目한記事의寄附한芳名中大同商會는大東商會로沈宜淑氏의다一올二斤은二打로各々訂正함

急告

木浦竹洞三丁目三番地海運送部에서東商會業徐炳寅은從前브터本人과同業又는店主其他何等의關係가無하오니內外僉諸氏는以此照亮하심
木浦府竹洞二一番地
徐寅燮 告白

現行朝鮮府郡島面里洞名稱一覽
定價金八十錢 書留送料十六錢
京城府堅志洞四六番地 振替口座京城一二六六番
發行所 松園書齋

今年新弓矢를完造되여例年보다待價廉賣하오니愛弓家僉位는倍前愛顧하시압 微誠을表키爲하야例外로弓矢使用又는留置의對한說明書는注文主의게限하야無料進呈함 但地方注文은先金에對하야는本社로서即旋酬應하겟사오며送料는本社로서擔負함
朝鮮開城東本町四八四
松都弓矢特製販賣社
主務 張致漢

梅毒의神藥
消風丸
定價金 三十日分 二圓五十錢
本劑는男女의梅毒淋毒에靈藥으로多年經驗하온바其效能은難治의病魔라도有藥一劑만服用하시면無疑히永久根治되오니一次試用하시오
京城鍾路二丁目五十番地
壽山藥房 主 金衡鎭 振替京城七六四一

周衣次絶好品
改良細白苧
今般本商店에서業務를大擴張하옵고左記와如히改良細苧를原産地로부터多數히直輸入하와限一個月間元價로販賣하오니四海諸位는此絶好의機會를勿失하시고陸續注文하시옵을務望하나이다 但壹疋以上만取扱하오니注文時에는品名과號數及疋數를詳細通知하시옵
◉特號 壹疋 金九圓
◉大號 壹疋 金八圓
◉中號 壹疋 金七圓
但尺數는朝鮮舊尺四十四尺이오一疋에周衣次二件이오婦女저고리次三件이되오며一疋以上은每疋五十錢式割引하옵고此以上은價額을特割引함
但注文時에每疋金五十錢先金을要함
朝鮮京畿道安城市場通
綢緞布木直輸入商 改良細苧
廣興商店
振替京城九二七九番 電話二四番 電話三四番
全朝鮮一郡一人特約店募集
麥粉、各種肥料特約販賣

最新歐美式、裁斷精細、彌縫美堅、請購即時酬應 薄利多賣主義 但地方注文即旋見本又定價表進呈 洋服代金引換으로함
開城北本町殖産銀行越便
天一洋服店 主務 秦尙梧

天下의絶景金剛山探勝
朝鮮郵船株式會社
5 萬物相外數個所에休憩所를新設함
4 學生團體二十人以上一六割乃至七割引
3 山內各旅館團體宿泊料를減價함
2 長安寺溫井里호텔諸料金減價함
1 平康長安寺間自動車毎日運轉
車船連絡探勝往復劵
獨單 三割引
團體 五割引
1 元山長箭間定期汽船毎日運航함
2 汽船賃金各等往復二割引
3 元山長箭間汽船에大型快航船充當
4 相當히人數가多할時는臨時海金剛에寄航함
5 海金剛에遊覽乘合船을新設함
南滿洲鐵道株式會社

金銀美術細工製造及眞佩物商의元祖

京城鍾路通二丁目三番地 電話本局一五七五番
和信商會 主 申泰和

耕山玉

第二百三十四回 불는듯뭇채질하는사람 (七) 碧霞

그러나사상우는 자긔의말이움시 긴작하얏슴을 아모조록티여히맘하라하얏다

「그러치만 나는당신의형님에게티한치업슬 얼마나감사한줄로생각합니다 아니ー당신이 그리하의미로 나의갈길 드러쥬신것은 참으로감사히여기는바이올시다 지금에조금만 내가더웃게나오든지 또는더일죽이나왓드면 당신과맛나뵈유가못할번히얏습니다ー」

하는심상우의얼굴에는 자긔의중고가 조금도어긋남이업시리웟티로성공한것을 깃버하는빗이넘치엇다 그러치만의연그의중고가 옷옷배서지성공을 하얏슴가? 아니ー그의중고는이와갓흔중고일것이다 참의성명이산이지사람에게 성명수(生命水)를주는것과갓헛다 그리하야그의중고는속벌서씨가 는진것이되고마릿다 지금으로부터 한시간전에만밀히앗드면도 그의중고는만족한효과를어더슬는지모른다

그럼으로그의중고는 맛치처음에불이 이러나라한셔에 미리헝비리라는바람이아니냐오 도리혀그불을부도아니여욱더욱화염(火焰)이이러나도록한것과갓헛니 속담시말할진데 그기청년의헝님이살한원인을밝히는동시에 그부인과갓가히함은 몸시위험함을말함세에 별서청년은 그부인에게함장람감이되고 마세이어다 다니ー그부인과밀속히할수는 업게된셔어엇나 안와그로하야금 그부인과밀측히하게하라면 그씨에는반다시 엇더한무서운풍파가 이러나는지도모를것이다

그러지아니하야도 청자부인에게 휘둘님을당한원한과분로가그러올나오는청년의마음에다가ー그되면그러한일을당한것이아니오그티의친형도 그녀자에게롱락을당한일과세상을떠나고만것이다!ー하고 심상우는뭇치질한것과갓치되얏다

「네ー 이와갓치만흔수고를엇기지아니하시고 일부러중고를하야주시니 뎌단감사합니다!」하고으로……ー」

하면서 청년은한번고개를숙더한뒤에 끄올치가라하얏다 그러치만그는옵시 흥분이된아둔인지? 그의눈은빌안간 한감하야지며 외셰상이문허지는것과갓치그의정신은 앗질하야 푹ー석구러지라하얏다

이째에심상우는화망히넘어지는청년의몸을씨여안엇다

「아ー정신차리시오 이러케너무흥분이되야셔는 도리혀내가말한것이 잘못되얏습니다 여보시오! 정신차리시오」

그러나청년은 심상우의씨어안은것을뿌리치엇다

「아ー올시다 당신씨셔맘삼하셧다고그러할이가 잇겟슴닛가공셔하세오 아모일업슴니다 아모일업슴니다」

하면서 청년은빗둘거리며 화확히가바련나 지금에「아모일업슴니다」말은하얏스나 벌셔그의뎌신은질점아지흥분이되얏슴으로뎌고 이뒤에아모일이잇지안이할것이다

그의머리가온데에는 오직맘악더으로날쒸에는 징분의모진바람이 우심계부릿슬썬이며 그의가삼에는분로와원한의불쏫이 출렁거리엿고 그의눈앙헤는 벌서이릅노던그외아모것도 보히지아니하고 오직무서운그무엇만 가로노히엿슬뿐이엿다

「헝님을롱락하고 또무엇이유에부족하야셔 나ー서는!」

생각하는째에 그의온몸의피는혈관(血管)이터질듯이 끌엇다

「형님을롱탈하야 산젼으로죽인뒤에 아직두달도못된오늘날또나서지! 이곳으로부터 사셔형용하야말할수업는모욕을준단말인가!ー」

이러케생각할째에 그의머리가온데에는 비지칠과갓흔 그무엇이 점점낫하나게되얏다 그리하야 그의살은진정한수업시 썰니기를마지아니하얏다

지금에청년의마음가온데에는이세상모든것이사라지고마랏다사회에나비웁이나 아비지이나어머니나누의동생이나 두려움이나붓그러움이나 사랑이나동생이나모다업섯고 오직무서운수간증생과만남앗슬쏜이다 그마음은폭발약과갓치 자못아쎄인힘이뭉치엇다 이러한그의마음에 오직남이잇는것은 앗가잡거장에서보든 자긔형님의적어는한귀질의큰발이엿다

「그러타 차라리죽는것이 나흘것이다 순결한남성의감정을마음대로롱락한것이 얼마나위험한자를 그녀자로하야곰 알이기위하야……………」

그러치만자기형님이 죽엇스나 그녀자는조공도 그러한늣김을밧지아니하얏다

高陽里에大曙光

高陽郡碧蹄面高陽里에서는有志張世昌、盧斗鉉、崔永鎬、李鍾麟、崔晩鎬諸氏가殖産組合을發起한지不過幾個月에組合員百十九名으로近來再立을終告하얏는데當選된任員은如左하고主要目的은資本金貸付와託賣買等인데資本金貸付에는低廉한利子로하야職業奬勵에注力하며委託賣買는必要品共同購入과生産物共同販賣라하야加入請求者가오며웃치지아니함으로不遠間更히資本金을增加할터이라하니組合의發展도祝賀하려니와高陽里에도一大曙光이되겟더라

役員氏名

組合長廉世昌 理事林昌雲 監查盧斗鉉 會計崔晩鎬 書記李圭龍 許議員長崔貴鎬 評議員盧敎鉉 李德善 崔永鎬 黃熙秀 李宜榮 李元明 韓順根 盧斗鉉 成啓鎔 盧千根(碧蹄)

南谷青年의庭球大戰

谷城青年會의主催와本報全南支局谷城出張所의後援으로去月十三日午前十時부터當地公立普通學校運動塲에서南原谷城青年의庭球大戰을開催케되얏는바當日은日氣가和暢한으로定刻前부터官民觀覽客으로하야금人山人海를成한後南原谷城青年軍各五組式選出하야谷城青年會運動部員金性煥君의禮辭가有한後智者大戰을始作하얏는데兩便選手等一猛烈한勇氣와南方應援隊의運動歌와(야지)聲은一時的谷城社會아니다大地가震動한듯한大盛況을呈하는同時에下午一時頃에야中食에移하엿셧스며同二時부터繼續大戰하엿는바結局南原軍이勇氣가衰盡하야谷城軍이得勝하엿셧다는데遂히同日三時頃散會한後谷城一優勝旗를八揚하고當公普校軍樂隊의引率下에市內各町을巡回하엿스며一面으로는有志丁秀泰氏는潭陽旅館에서兩郡選手等의慰勞宴을開한後丁秀泰氏는自働車를貸切하야가지고約一里境되는곳까지南原軍을送餞하엿는데今般庭球試合에義捐金額及氏名과選手의氏名을如左하다더라

谷城軍 (申鍾淳 丁來鶴 優勝組 丁琮泰) (朴在昌 梁斗萬 安三-)

谷城軍 (丁來龍 優勝組 丁來聖 優勝組) (朴文圭 池光烈)

南原軍 (金喆守 優待組 崔仲永) (金相文 李宗一 優待組 崔鍾善 金昌烈)

南原軍 (李永鐵 許在修) (李漢玉 金相晩)

義捐者氏名

谷城藝妓張錦姬、同藝妓徐玉姬、同潭陽旅館主朴貞子、青年會各優勝旗一件式其他官民有志諸氏의義捐金合七十圓(谷城)

女子夜學의好況

全北扶安郡上西面桃花洞居有志白樂俊、白南起、白南洪、白南斗四氏의發起로大正十一年四月부터女子夜學部를當地面公立普通學校內에設立하고以來進行中인바生徒가三十餘名에達하야成績이優良하며其校內의費用과生徒의日用品까지라도四氏가全擔하고金從局氏는敎鞭을義務로執하야風雨를不顧하고一般學生의게熱誠敎育한바地方有志는右諸氏의誠意를讚頌不已한다더라(新泰仁)

慕賢義塾의大運動會

龍仁郡慕賢面陵院里私立慕賢義塾에서는客月十三日에該校塲에서春期大運動會를開催하엿는데他校中新明講習所와維新義塾과深院義塾等의三校가參加되야各々六十餘名의學生으로各里의選手競技로猛烈히雌雄을決하엿스며其他順序의運動과各校의合唱으로終結을告하야無前의大盛況을呈하엿다는데一般學生의活潑한氣像과非々한儀容은觀覽客과父兄은勿論이오數千에達한紳士淑女의觀覽客으로하여금無限한愉快와滔々한興味를誘發케하엿다더라(龍仁)

光州主日私塾의近況

光州郡楊林里西婦人의主催로設立된主日私塾은數年前부터着々敎授하며오누터인티今年春期에는幼稚園을卒業한兒童만約三十名假量을入學케하고楊林面存沙洞居曹八福女史를敎師로雇聘하야目下熱誠的敎授中이라는바生徒一同은一日도欠席이업시學業의好成績을得하야다더라(光州)

咸北女子界曙光

咸北富寧邑內에現居하는金한나女史(當年四十六歲)는일즉이男便으로子나되는金昌變氏가商業의失敗로因하야露領西伯利亞地方에出稼한지數三年間을苦痛과悲慘裡에서一家를鼹理할시貧窮의侵害가極甚한中에셔도家庭의秩序를維持하다가畢竟은自己가西伯利亞에專往하야外地에長在하던家君을다리다가國業한生活도지繼續하게되얏슴에近隣의稱頌이嘖々하더니距今九年前에目下鏡城耶蘇敎會의執事인盧春變氏의게서耶蘇敎의傳道를밧다에수恭督을惟一한敎主로밋으며그道理를傳布함에努力할셔自然히聖經에關한知識의不足을感하야距今四年前우터元山女子聖經學院에受學한以來身을慈善事業에獻하야우리社會에多大한利益을끼치는中에도더욱히婦女子를爲하야만히活動하는터인티特히富寧의女子夜學會와古茂山의婦人夜學會에對하야는衛生學과朝鮮料理를無料로敎授하며維持에勞心함으로落者이尙存하야敎育은男子의게만히는것으로誤認하는者가多하든富寧郡內에도女子의讚賀하는소리가날로놉하간다하니是實北部女子界의曙光이라할만하더라(鏡城)

黎明劇團이來開

新派活動寫眞連鎖劇黎明劇團安光翊君一行이開城에來到하야本月一日부터開城座에서興行하는데藝題中時代的의戀愛劇『紅葉門』은逼眞하고和神的倫理的이며慈善的인圓滿한家庭으로滿場觀衆의快感을與하얏다더라(開城)

沙上公普落成式

東萊郡沙上面公立普通學校에서昨冬부터新築中이든校舍를落成하고來十二日午時十時부터同校庭에서落成式을擧行한다더라(東萊)

宇宙間人生의感想

滄雲 成曉永

아ー나는弱者로구나! 無勢力者로구나

아ー나는失敗者로다! 落伍者로다

嘲笑의視線은나게로集中하며嘲笑의眼孔은내게로만向하는듯이다散亂한나의心中은그우히긴장하며자미慰勞하여주는愛友의虛飾엽는良心으로의情談도나를同情한다는모든동무에千言萬語로繼히나의게對하야는鬱憤의刺戟劑요爆彈의導火線이다億萬學友가나를理解한다하더라도나는弱者、無勢力者의境遇를벗어나지못하며失敗者落伍者의處地를빼질수엽게되엿다果然이다!勝利와光榮이넘나드는微笑에絕頂에오르는未來가잇다하더라도現在의事實은永遠히나의記憶에서써날수업는『어데로의냐』「가야될수엄다弱者、無勢力者、失敗者、落伍者、의文句自身으로보아그것이『無氣力、無活力、不滿、不快、失望、墮落、鬱憤、悲觀等悲觀의意味가潛在』한것이라할진데그런文句의修飾밧는나의自身이또한그럿치아니치못할것이다나는無氣力하고無活力하다不滿不快等은갓感情에뵐과갓치좁은가슴을티우리한다나는몸이느른하며心神이萬端에갈라진다

아ー니어롭『自取함』인가?『誠意不足함』이던가?『自力이不及하엿던더ㅁ』이런가?『渴求하든熱情이잇슴으로』써ㄴ가?『아니다!確實히아니다! 모도다아니다!』『不得已』를感하게되는環境의情況이許諸지아님으로솜이라아ー이것이또한世波라!事已至此여늘너이를區々히追憶하며心神을괴롭게함이眞實로多思客이요小心漢일것이다黃金萬能을標榜하는周圍의事情과 環境의情況이 不許함으로『못갑』을이지로가게만들러한좁그結果가 將次엇지나되랴? 더구나『싼』으로조타는海外가『貧』도有名無實이되던지『貧』보『조흔』京城에『想』으로『不好』하다함이『訣』라는結果를證할진데果然엇지하랴?大槪自己의所得이란對像그物件에잇지아니하고主體인自己의달려스니他人이다갈오되『所得이잇다』하는海外가나의게所得을주지못할진데또한『볼것업다』하는京城이나의게더한층以上에所得을줄진데果然엇지하랴?傳說傳記가거의다ㅣ虛言公文일지로다오즉實證하는自己의印像마일지로다『조코』『고흔』은보고듯고성각한各自의記憶의詐할것이아닌가?

아ー내가이러다니가神經過敏하다『못갑을』限하는나의心思果然家眛하다!님우도可憐하다『甲方의努는乙方의喜로人의福은我의禍로且의哭은人의笑로』化作되는世事임을너眞實로아니못하엿더라나의의今日은努力이너무薄弱한故이오奮鬪가너무小한故이다今日부터의米의懶散을大覺하고努力할지로다나의努力을뉘ㅣ能히禦侮者이며나의奮鬪를뉘ㅣ能히阻戲할者ㅣ라競技場上에我의無色은얼마나寒心者이며二十世紀活舞臺의나의不振은얼마나慚愧한者이리오無限의努力과無限의勇氣를發揮하야過去의懶散을雪하고永遠한將來의樂園을成케하라함인저‖(쯧)

主日學校의卒業式

黃海道安岳郡東倉浦幼年主日學校에서는去月二十七日에當地에수敎會堂內에서同主日學校卒業式을擧行하얏는데會長林成根氏의司會로開會가되야順序를따라金尙乾氏의式辭가有한後七八歲幼年들의舞蹈唱歌는觀衆의興感을與한後午後四時에閉會하얏다더라(東倉浦)

普信學院創立

黃海道兼二浦天道敎少年會에서는當地天道敎傳敎室內에普信夜學院을設立하고去一日午後九時에開學式을擧行하얏는데講師崔在英氏의司會下에院長張義燮氏의訓辭와本報支局長孔國鎭氏의祝辭가有한後康明花孃과趙用馬君의獨唱等諸般順序를終了하엿는바現在入學生이五十三人에達하야盛況을呈하얏스며前記崔在英、李道鉉、黃鶴三諸氏가義務로敎師의任務를負擔하야熱心으로擴張을期圖하는故로一般은當地敎育界의曙光을讚頌한다더라

人民의便宜를主張

(第二面)

慶北醴泉警察署에서는去一日市場日을利用하야午後三時부터署長以下各係員이自動車를乘하고市內를巡回하며(口頭申告)를宣傳하얏는데其市告條件은如左하더라

一、盜難屆二、變死屆三、留置人面會又私食願四、搜索願五、說論願及保護願六、行旅者及變死者假埋屆七、拾得物遺失物逸走의家畜流步物等에關한屆八、興業에關한願屆九、荷車의所有讓質渡又는長大의物件積載의願一〇、道路使用願一一、煙火打揚願一二、傳染病發生屆一三、獸役發生屆一四、斃獸處置許可願一五、居塲外에서獸畜屠殺에關한願屆一六、特別事情에依한火葬認可願一七、諸營業의廢業休業屆一八、所轄警察署에手續할者로써便宜上何署所에屆出할境遇(醴泉)

谷城金融組合總會

全南谷城金融組合에서는第十一回定期總會를去四月十八日에開催케되야午前十時부터當地公普校內에組合員을集合하고組合長金永會氏로부터開會辭와決算報告를了한後順序에依하야役員改選을進行할터이엇는데投票員數의形便으로因하야不得已閉會치못하고更히日時를延期하야同二十九日付로써前記場所에셔臨時總會를開하고滿場一致로下와갓치役員을改選하고午後五時頃에閉會하엿다더라

組合長丁奎泰、監事金奎澤、梁建植、竹上千代市、評議員丁桂泰、梁科植、金圭容、吳基冰、安東燮、盧準鉉、朴宗植、鄭鎬毛、孫在燮、李相赫、李鍾安(全南)

光州局事務成績

全南光州郵便局의大正十一年度事務取扱件數를開한즉通常郵便物의引受數가百六十一萬千三百八十六通十年度에比하면三割八分七厘의增加에며同配達數三十八萬六千二日四通十年度에比하면一割一分九厘의增加오小包物總數引受數는萬三千八百四十五個인데十年에比하면一割三分以上增加오配達數는六十五百六十一個前年에比하면一割四分以上增加오郵便爲替取扱數振出二百三千百七十三件前年에比하면七分二厘增加이며拂渡數는萬六千百三十件인데前年에比하면一割八分以上의增加오郵便貯金預入件數一萬五千八百九十七件前年에比하면三割六分以上增加오渡件數六千三百二十五件二分의減이엇다는데其他電信電話等의事務成績도逐日益增加되다더라(光州)

東倉浦少年會創立

黃海道安岳郡東倉浦에서는同地有志者卓世昌 洪日煥 表利鉉 表淳成 高宗龍 韓弼權諸氏의發起로少年의五相親睦及智識交換體育發達을目的하고會員四十餘名이當地私立培英學校內에셔去月二十八日午後八時에會集하야東倉浦少年會를組織하얏는데會員資格은十五歲以上二十五歲以下로하고會員을募集하는中이오任員氏名은左와如하더라

會長韓弼權 副會長洪日煥 總務表淳成 書記徐永贊 卓世昌 財務卓世昌 徐永贊 評議員高宗龍 卓世昌 洪日煥 金有譯(東倉浦)

黃秋兩氏의奬學心

醴泉郡醴泉面東本洞居黃秉夏、秋報醴泉支局寫眞師秋大田兩氏는本是性質이溫順하며또한公益心이豐富하야今番에醴泉佛敎布敎一夜學會男女學生이晝間에는肉體的苦痛을밧고밤으로餘暇를得하야疲困함을不拘하고每日出席함으로此에感하야筌冊洋紙硯筆等을多數寄贈하얏는데一般學生은勿論이오地方人士는兩氏의奬學心을稱頌不已한다더라(醴泉)

廣明義塾의成績

醴泉郡柳川面鷹田洞居金炳泰氏는數百戶되는洞內에新敎育機關이업슴을恒常遺憾으로思하던바該洞有志의贊助를得하야廣明義塾을設立하고敎師는醴泉私設大昌學院出身科生徒로엇는黃有海、鄭希彩兩氏가誠心誠意로써名譽敎授함으로生徒가四十餘名에達하야學課成績이頗히良好하다더라(醴泉)

光州殖銀支店成績

殖産銀行光州支店의四月分事業成績을開한즉預金이百八萬三千三百六十餘圓이며貸出額은五百五十二萬五千八百餘圓이라는데前月分에比하면貸出部는減少되고預入金은約一割一分以上의增過이라는데成績이우良好하다더라(全南)

金小浪新派劇團

新派連鎖劇聚星座金小浪一行은朝鮮全道에巡業興行으로去月三十一日에當地浦項에到着하야同日부터迎日座劇塲에서大興行을五日間豫定으로하게되얏는데當地男女人士들은喝望하던차에定刻前부터劇塲內觀覽者들은물미듯이滿塲이되야스며同八時半부터開演하얏는데團長金小浪君의熱烈한雄辯으로開幕說明한後幕割順序로家庭正劇興行寫眞으로數百名의觀覽者에게多大한興味를與하야拍手聲은場內가震動한듯又는當地人士들은古今에稀有한新派連鎖劇이라하며每日마다滿의盛況을呈하얏다더라(浦項)

園藝會

日時 六月五日午後七時半부터

會場 仁川內里禮拜堂

入場料 大人 三十錢 學生及小兒 二十錢

主催 仁川永化幼稚園

後援 東亞日報社仁川支局 朝鮮日報社仁川支局

甑山幼稚園設立

平南江西郡甑山監理敎會에서는去月부터幼稚園을設立하고元彰新學校々室에서園生二十名餘를敎育하다는데今月부터는一層大擴張을하고져同敎傳道師金振鐸外諸氏가努力中이라하며서라地方人士도同園設立함을非常히歡迎한다더라(江西)

蔚普校生의退學命令

蔚山公立普通學校에서는該校新築費를幾分間學父兄에게寄付를請하야各學父兄은不得已自己子女를爲하야 生活困難을不拘하고 幾許의寄付에應한것은事實이라現今經濟窮乏에無限한苦楚를經하는農村同胞는人生最後의悲慘한境遇에處한것은多言을不要할바인즉엇지子女를爲하야愛情이懇切할지라도無産階級의人民이寄付金拂込이容易할것이아닌것은何必學務當局에서만等閑視한가?所謂寄付金을即時納入치아니한다하야學生을退學케하며停學을命하는가?可能性을發揮하야敎育機關의光彩를發揮할도今日의文化向上의絕對時代이며嚴格한態度下에學問을修하라는學生에敎役者間의人道上問題는萬里霧中에사르진것과갓다하는傾向에서武治의餘澤이文治의大德을撲滅한덧도로서數十餘名의學生이退學命令에對하야怨聲이有하더라(蔚山)

視察社員歸阪

大阪濟州間航路를開通코자尼崎大阪支店長福井政太郎氏와金秉敦氏가濟州를視察코자來到하얏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右兩氏는實地調察을마치고歸省하얏는데不遠將來에濟州、木浦、仁川間와濟州阪神間完全한航路를開通하리라하며各地交通의便利를싸라濟州의文化向上과產業發展이되리라더라(濟州)

金秉敦氏의好意

濟州島新在面朝天里에는公立普通學校가잇스나學齡兒童이다收容치못함으로父兄側에서는매우遺憾으로녁이고洞有財產金으로瓦家大間一棟을建築하야私立普通學校를設立코자하는中右金氏는費用金의萬一을補助코자金十圓을寄附하얏슴으로洞里人士는稱頌한다더라(濟州)

私立正明校維持

忠北淸州郡江內面多樂里私立正明學校는該校職員全炳辭氏의獻身的管理하던바今年度부터는新任員에게一任하야本面內有志人士가合同維持케되얏고三年間負債一千三百餘圓은全炳辭氏가負擔請債하기로決定하얏다더라(淸州)

濟州署에除蠅宣傳

濟州島警察署에서와各地警察官駐在所에서는傳染病發生하는夏節을當한고로傳染病의媒介物이되는蒼蠅驅除를徹底히宣傳키爲하야各處에蒼蠅驅除宣傳文을配付하고市內에는朝鮮式樂隊를組織하야警察部以下巡査五六名이行列을지어宣傳하야衛生思想을發揮하는同時에年前와如히不幸이업시注意함을바란다더라(濟州)

衡平分社設立

京釜線天安郡內에居住인白丁들은晉州本社와連絡하야天安에도分社를設立하얏는데本月十九日에晉州本社에서申鉉譯가來到하야當地天安座에서天安郡內에居住하는白丁男女老少를勿論하고會集할터이며同午後二時부터祝賀式을擧行한다더라(天安)

婦人講習會遠足

東萊婦人講習會에서는滿三年排難苦鬪하야오던것을紀念하기爲하야敎員一同과在學生이陰本月十九日東萊普通學校女子部에서午前八時에集合하야東萊西面仙岩寺에遠足하는데當日紀念寫眞을撮寫하기爲하야同窓生과新聞記者들을招待하얏다더라(釜山)

車輛稅又爲徵發

全北益山郡에도車輛稅를實施하게된事由는近年地方費諸般施設에作하야歲出이增加되야從來歲入으로는到底히充足키難한狀態임으로形便에依하야一時保留하얏던車輛稅를實施케된바左와如히一年度二期에分하야第一期는五月末日十一月末納付케되얏스나今年度는時期의關係로萬一期를七月末日內로收捧케되얏다는데車輛이有한者는六月十日까지各기自己面事務所에申込하도록各面으로諭示하얏다더라

自動車一臺三十圓 乘用馬車一臺五圓 荷牛車一臺五圓 荷車(一、二) 人力車一臺二圓 自轉車一臺二圓(裡里)

辭令塔

근일경기도청에서 발표한광고를보닛가리사뎌(理想)광고도다만은설자셔히본속인민으로하야곰 온돌기량(溫突改良)하라고권유함인데▲그방법인즉불씨이는아궁지와연동을두엉으로덥흐면온기가삼장(三割)이상을보존한다 하엿다 나는그광고문을볼때에성각하기를 설확이곤난한이때를 당하야누구던지소비를 절약하기위하야셔도맛당히 실시하여야만 하겟지마는▲그보담더 급히개량할일이잇던걸 사람이너나할것업시이 먹지를못하야 티다○경(大腸經)이시들시들하야서 동풍이될디경이니 이안이급박한 사정이안인가 자양품은갑히바라지도 못하거니와 보통식료품이라도간단업시먹게하야보온(保溫)케 하는것이엇더할가▲당국자들은 이런말을들으면 다각기지의성활이 지가하지못하고 남의뢰하는말을 하는가하겟지마는 여간수입은각종세금을몰어주기에 절을어입고 기타각종방면으로 활동하야 상업에라도하여야만하겟지마는▲무슨아금으로하로 여간놈은자본금한푼 엇어볼수입스나상업도 경영할 돌리가업다당국자들도 눈이잇스면인민의급업(廢業)한상티를볼것이 안인가사람의 대장경은 ▲시들시들하야찬바람이나도 온돌만기량하야온리만장구히보존하면성활할수잇슬가만져사람의 창자를덥게할방칙을연구하는것이 급선우라하겟다 (곤궁성)

廣告

特別書籍案內

時下陽春之際에同胞兄弟의僉益淸穆하심을祝福하옵나이다陳者弊書舘에서開業한以來에業務가日就月進하옴은誠히同胞兄弟의愛護하시는厚恩이라銘之肺腑하야感佩不已하압거니와如此한惠澤을報答하기爲하야現時思潮에適應하고時代의要求되는各種新舊書籍과學生의敎科書及用品을無漏具備하고特別割引하야提供하오며加一層業務를擴張하엿사오니四海僉位는倍前愛顧하야주심을懇切히望하압나이다

眞本 鄭鑑錄 附諸家秘訣 定價七十五錢 送料十一錢

普通學校 國史自習書 (上、下卷) 定價三十五錢送料四錢 (四月二十日刷終了)

尋常小學 地理自習書 (一、二卷) 定價三十五錢送料四錢 (四月三十日印刷終了)

普通學校 朝鮮語自習書 (二、三、四、五、六卷) 定價每冊十錢 送料二錢

普通學校 國語自習書 (三、四、五、六、七、八卷) 定價每冊十錢 送料二錢

尋常小學 國語讀本詳解 (九、十、十一、十二卷) 定價每冊廿錢 送料二錢

普通學校生徒用 國語理科農業 新式辭典 定價六十錢 送料六錢

新撰 朝鮮語法 定價八十錢 送料六錢

增訂附錄 漢日鮮新玉編 定價八十錢 書留送料九錢

最新 朝鮮里程地圖 定價三十錢 送料四錢

空中男士 安昌男君飛行記 定價二十錢 送料四錢

愛의眞境 定價二十錢 送料四錢

最新 巡査看守受驗準備書 定價六十五錢 書留送料十一錢

◉此外各種敎科書及其參考書經學、傳記、小說、語學、尺牘、地圖等諸般書籍이無漏具備

新舊書籍學生用品 京城慶雲洞三十六番地 文化書館 振替京城一四四六番

當六月一日부터新寫眞提供

實寫 國際時報 米國유니버ー살會社 全一卷

喜劇 禁制의酒 米國유니버ー살會社 全一卷

西部劇 白日의夢 米國유니버ー살會社 (후트깁손)氏主演 全二卷

喜劇 電車와自働車 米國유니버ー살會社 全二卷

人情劇 鐵拳의娘 米國유니버ー살會社特作品 名花크라레어스윌토ー니孃主演 全六卷

連續活劇 大魔王 米國유니버ー살會社特約 連續王에데보ー로氏主演 全十八篇三十六卷 第二回第三、第四篇四卷上場

當五月三十一日(木曜) 特別新寫眞交換

實寫 우오ー타ー사ー가스 日本松竹키네마社映畵 全一卷

正喜劇 警鍾亂打 米國고ー루도ー인社映畵 主演…도무、무ー아氏 原作…윌리의·ㅁ、하ー무빗도氏 全五卷

戀愛劇 愛?友? 米國라스키ー、모로스코社映畵 原作…보ー에ㄴ、테ー유스氏 脚色…아ー도나ー한데氏 全五卷

愛?友?이것은우리이게가장切實한當面일가하나니다

連續 파토마 最終篇 六卷 용한활동을마지막으로나타내이고쓸사더할야의최후결말이엇지나될가?

授恩洞 團成社

京城府仁寺洞 朝鮮劇塲 電話本局二六二〇番

五月卅拾壹日부터新映畵公開

實寫 쌔데ー유니스 米國쌔데ー支社 全一卷

人情劇 호와이트모루 米國월니암후옥쓰社映畵 名花쌔호와이드孃主演 名優월터ー슨씨스토ㄴ氏助演 全八卷

連續活劇 呪의毒矢 米國쌔데ー支社 루이로와트孃主演 에드와트한氏力演 全十五篇三十一卷 第十一篇、第十二篇 危險한海水、罪惡의家 第六回豫告近日上映

連續活劇 하리ㅅ게。하씨 米國쌔데ー支社 싸ㄹ스핫송氏主演 全十五篇三十一卷

日活直營 優美館 電話本局二三三五番

腫症靈藥

多年經驗의好評得한醫師의秘藥 定價大一包二十錢小一包十錢 各處藥局商店에서販賣益々愛用하시고同業諸位는本舖注文하옵

京城府授恩洞百十九番地 普彰醫院大藥房

好職業

專賣特許ゴム靴繡遠近男女自宅職業熟練個人日收三圓收三千二百圓以上特約店月知內容送先金一圓則製品各種及敎授書商報並星道郡面區特約店募集

京城府公平洞八七番地 東京二葉株式 朝鮮總本部 富國商會 振替京城一〇二七〇番 電話本局三一一番

敬啓者 本堂을左記塲所에一層大擴張하옵고廉價로迅速酬應하오니倍前注文하심을望함(但地方에는代金引換으로함)

營業科目

株券、小切手、股券、各種商標、各種藥封皮、各種書籍、針器皮、大中小箱士皮、其他各種美術印刷一切

京城府長橋町七番地(長橋南川邊下第四家)

文雅堂石版印刷部

獨逸名藥代理需應開始

這間在上海日本郵便撤廢로因하야物品需應上不便한關係로代理需應을中止하얏더니以來本報愛讀諸氏로부터物品購入依賴가繼續踏至하오나一一謝絕이實로未安하오나吾人은物產奬勵主義下에서外國製日用品需應은不得已一切謝絕하오니恕諒하시며但本國에서아직發明製造치못한獨逸及各國著名한醫藥中最確實有效한特別靈藥에限하야各該製藥會社와特約하고低廉한價金으로不幸有病하신同胞의게需應하오니此는專히同族相愛하는微誠에서出함이오決코營利的이아니라故로藥效에對한疑心이잇거나或價貴한듯하거든注文치勿하심을바라나이다

新六〇六 獨逸엘리히博士發明한梅毒根治注射藥이라病人이此藥을사가지고醫士의게가서注射하면完治되고經濟的◉藥價壹號八拾錢•貳號壹圓拾錢•參號壹圓六拾錢•四號貳圓•五號貳圓四拾錢•六號貳圓八拾錢◉送料六拾錢

治淋淸床藥 方名(헤ᄅ미톨)專治新久淋疾、尿道刺痛、腎臟炎、膀胱炎、尿酸等症、一服立効◉每瓶七日分送料幷一圓五拾錢

肺病必愈藥 方明(구아이아코ー세)肺結核及咳嗽病者의게絕對神効◉每劑送料幷拾圓

萬病一粒珠 天下唯一之名藥、家庭必備之寶物 主治新久滯症、頭風痛、胸腹痛、腸胃病、吐瀉霍亂、虎列剌、赤白痢疾、發寒發熱、感氣熱病、中暑中寒、齒痛、風濕骨痛、咽喉諸病、項腫背瘡、刀傷火傷、內外一切無名毒腫、小兒驚風、百發百中其効如神、萬試萬驗一粒千金◉每包(百二十粒入)送料貳圓

補腦安眠藥 方名은아달린治專治神經衰弱、記憶力減退、不眠症、遺精夢泄等症補腦養神之聖藥◉每瓶送料幷壹圓五十錢

癲狂病藥 [方名루미날]專治發狂、癲癇(지랄병)精神病及重症之不眠病◉每瓶送料幷壹圓

小兒蛔虫糖 英國製니兒童들이먹기조코蛔虫驅除에神妙한三歲以下一包既愈하고或十二歲以下病重者數包立愈◉每包送料幷九拾錢

海狗腎 古來之名藥이오男子之寶物이라補陽催淫之功이天下無比하니年老人과生殖器衰弱者는願一試之◉每頭送料幷拾五圓

唐麝香 西藏產이오極上品으로送料幷每分重時價壹圓、每一錢重特價九圓

◉供藥三章

一、右記諸藥은藥効가非常神奇한代에藥量이甚少하고藥價且多하니豫諒하시고誤解치勿하시옵

二、注文人士는반다시郵便換으로先金을付送하심을要함(但代金引換은謝絕함)

三、用藥後見効全快하신人士는書信으로깃분消息을通知하사吾人으로하여곰祝賀케하심을願함但花柳病藥에對하야絕對秘密을守하오니安心하시옵

上海吟桂路榮華里 朝鮮日報上海支局代理部